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절차	3
II.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문헌 연구	4
1.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인구 실태 현황	4
가. 개요	4
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주요 특성	6
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역사	7
라.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별 체류 현황	7
2.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 현황	9
가.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의 추진과정	9
나. 농림부의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19
3. 정부 정책 현황	23
가. 정부정책 추진 현황 및 한계	23
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26
다. 민·관의 교육현황	29
4. 외국 사례	31
가. 사회적 편견 해소	31
5.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33
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기능 요구조사 및 분석	33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방향	37
III.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43
1. 한국어 교재 분석 개요	43
2.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44
가. 농림부 - 우리엄마의 한국어	44
나. 배재대 & 삼성 -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46

다.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49
라. ㈜다락원 - Korean Made easy for beginners	51
마. ㈜다락원 & 아리랑TV - Arirang Korean Basics 1, 2	54
바. 여성 가족부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56
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말이 트이는 한국어	59
아. 한림 - 초급 한국어(말하기, 쓰기)	62
자. 문진미디어 - Active Korean(1, 2)	65
차. 넥서스 - Survival Korean(초급, 문법, 어휘)	68
3. 교재 분석 결과 종합 정리	71
4. 방문형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시 시사점	80
IV.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능력 신장 방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위한 인터뷰	82
1. 인터뷰 대상	82
2. 인터뷰 내용	84
가.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자	84
나. 한국어 학습자(이주여성)	85
다. 교사	87
라. 교재개발자	87
마. 지역사회 혁신 바우처 참여 교육국	88
3. 인터뷰 내용 종합 정리	90
V.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방문형 한국어교재 개발방향	92
1.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목적	92
2.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방문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93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방문형 한국어교재 컨셉 및 특징	95
4. 학습목표	96
5. 교재개발 방향	97
6. 방문형 한국어 교육 체계	98
VI. 결론 및 제언	99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

※ 부록 1. 한국어교육 관련 현장 인터뷰

.....

※ 부록 2. 한국어 교재 분석(10종)

.....

표 목 차

<표Ⅱ-1>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4
<표Ⅱ-2> 한국남자와 혼인한 외국여자의 국적별 혼인	5
<표Ⅱ-3>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6
<표Ⅱ-4>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	6
<표Ⅱ-5> 지역별 사업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기관	9
<표Ⅱ-6>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수혜자수	10
<표Ⅱ-7> 한국어교육 수혜자 출신국가별 분포	11
<표Ⅱ-8> 한국어교육 수혜자 연령별 분포	11
<표Ⅱ-9> 한국어교육 수혜자 자녀별 분포	12
<표Ⅱ-10> 한국어교육 수혜자 거주기간별 분포	12
<표Ⅱ-11> 한국어교육 수혜자 사용 언어별 분포	13
<표Ⅱ-12> 한국어교육 수혜자 정보수집 경로별 분포	13
<표Ⅱ-13> 한국어교육 수혜자 교재수준별 분포	14
<표Ⅱ-14> 한국어 후속 교육 필요성 분석	15
<표Ⅱ-15> 한국어교육 향상 수준별 분포	16
<표Ⅱ-16> 한국어교육시 분위기별 분포	16
<표Ⅱ-17> 한국어교사 수업진행별 분포	17
<표Ⅱ-18> 한국어 향후 교육기회 이용별 분포	17
<표Ⅱ-19> 출신국가별 선정 인원	22
<표Ⅱ-20> 연령별 및 거주기간별 선정 인원	22
<표Ⅱ-21> 농가 및 신규 여부	22
<표Ⅱ-22> 연도별 교육목표	27
<표Ⅱ-23>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 목록	34
<표Ⅱ-24> 의사소통 기능 요구 수준에 따른 장소와 대화자 분석	35
<표Ⅳ-1> 인터뷰 대상 및 참석자 수	82
<표Ⅳ-2> 인터뷰 내용 종합	90
<표Ⅴ-1> 방문형 한국어 교재와 그룹 학습 교재 비교	93
<표Ⅴ-2> 방문형 한국어 교재 단계별 세부 학습목표	99
<표Ⅴ-3> 언어숙달도 구성요소	101

<표 V-4> 방문형 한국어 교재 1주 1세트 구성 세부 내용		103
<표 V-5> 방문형 한국어 교재 1주 1세트 기획안 내용표		104
<표 V-6> ㈜대교의 E-nopi KOREA 워크북 예시		111

그림 목차

<그림 II-1>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체류 현황		8
<그림 II-2> 사고과정 모델		39
<그림 V-1> 방문형 한국어교육 시스템의 구성 요소		98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000 년 단일 민족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21 세기에 들어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문화는 언어, 문화, 관습,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한다.

1980 년대 이전까지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족의 형성은 한국인 여성들이 미군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1980 년대부터 종교단체를 통한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된 이래, 1990 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결혼은 1990 년대 중반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 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와 맞물려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5 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 명 가운데 13 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국제결혼의 보편화는 새로운 문화 계층을 만들어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반만년 단일 민족으로써의 역사적 자부심이 남다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이들의 자녀들은 양 부모의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는 가족과 사회 안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언어적,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와 농림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으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및 상담 지원 서비스를, 보건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혁신 바우처’를 통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006 년 4 월 19 일부터 시작하여 12 월 15 일까지 대략 8 개월 동안 전국을 5 개 권역(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대구/경상권, 광주/전라권, 강원도권)으로 나누어 (사)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연대의 주 센터 및 농협의 (사)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결과, 한국어 수준이 ‘향상 되었다(88%)’는 응답이 가장 많아 본 교육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교재의 수준에 대해

‘적당하다(61.5%)’고 응답했으나 ‘어렵다(31%)’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 교재의 보완이 필요하였고, 후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수혜자의 96%가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10 회 교육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07).

결론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교육 및 한국 정착 서비스로 지원되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가정 형편, 지역적 특성상 센터에 나와 한글 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가 되나, 학습자의 요구도와 수준에 맞춘 방문형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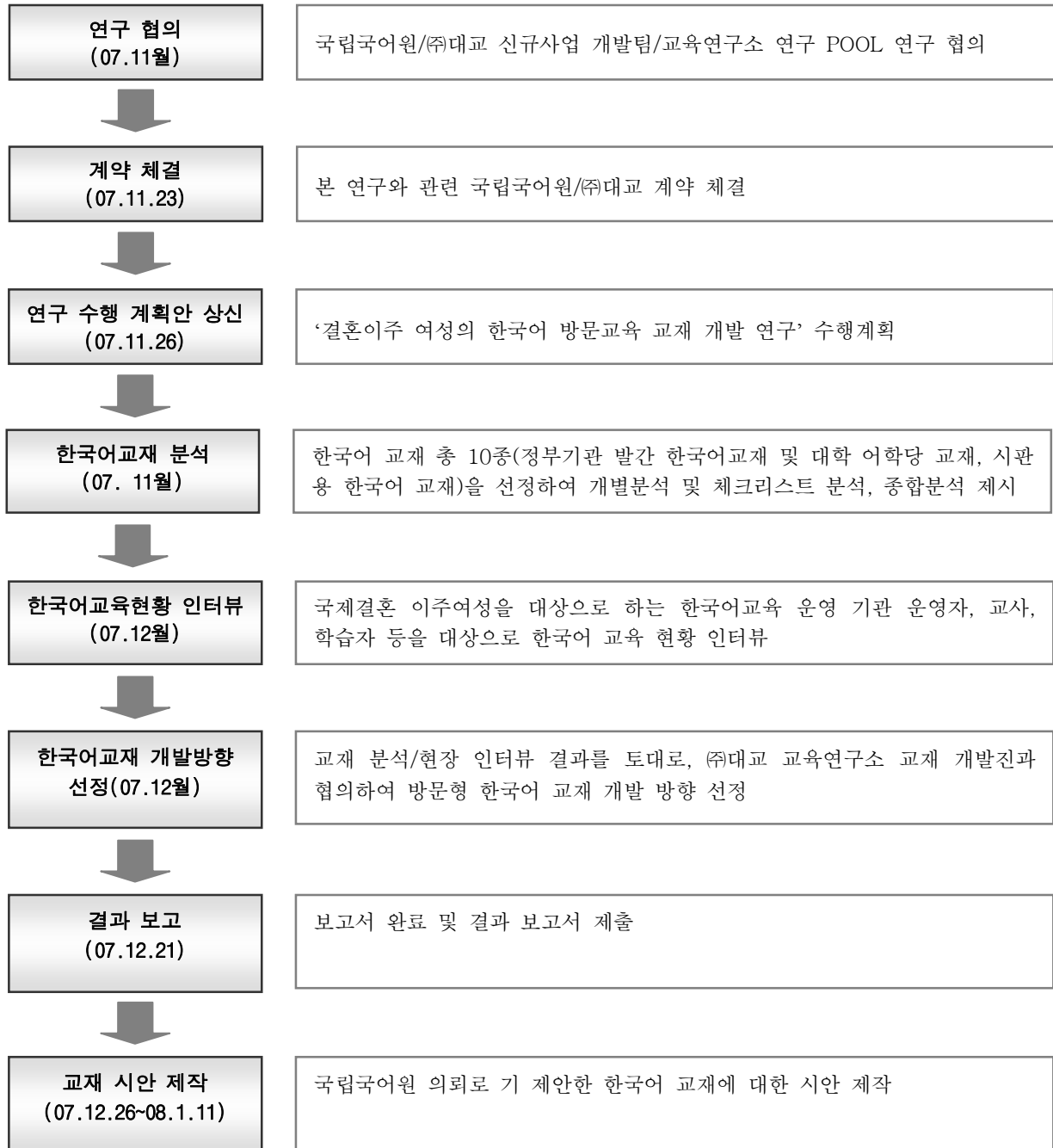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의 한국어 교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이 30 년 방문 학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주)대교 교육연구소에 의뢰된 연구 용역 과제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 개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협의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둘째,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언어 숙달도와 문화 숙달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 상황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이론을 살펴보고, 현재 어학당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어로써의 한국어 교육 교재의 분석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 개발 연구’ 방향을 도출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연구 절차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 개발 연구’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II.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관한 문헌 연구

1.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인구 실태 현황

가. 개요

1990~2005 년 사이에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59,942 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5 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 명 가운데 13 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

< 표 II-1 >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통계청, 2006)¹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1990	399,312	4,710(1.2)	619(0.2)	4,091(1.0)
1995	398,494	13,494(3.4)	10,365(2.6)	3,129(0.8)
2000	334,030	12,319(3.7)	7,304(2.2)	5,015(1.5)
2003	304,932	25,658(8.4)	19,214(6.3)	6,444(2.1)
2004	310,944	35,447(11.4)	25,594(8.2)	9,853(3.2)
2005	316,375	43,121(13.6)	31,180(9.9)	11,941(3.8)

※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는 단순 혼인건수의 합계로서 현재 외국거주자, 국내에서 결혼하여 출국한 자, 사망한 자, 귀화한 자를 삭제하지 않고 국내 호적에 신고된 자를 모두 합산

1)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 특징

¹ 통계청(2006.3). 2005 년 혼인 및 이혼 통계 결과

-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
-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 중국(재중동포 포함), 베트남, 일본여성이 대부분을 차지
-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다변화 경향
-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은 중국 20,635 건(66.2%), 베트남 5,822 건 (18.7%), 일본 1,255 건(4.0%) 순
-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4년에 비해 136.5%의 높은 증가율 기록

< 표 II-2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통계청, 2006)² (단위: 건,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 미국, 중국, 기타로 구분, 조사 시행하여 세부적 파악 불가

※ 1999년 국적별 분포는 중국 2,883명, 일본 1,248명, 미국 280명, 기타 1,364명임

2) 농림어업 종사자와 혼인한 이주 여성의 국적

² 통계청(2006.3). 2005년 혼인 및 이혼 통계 결과

- 특히 2005 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 건 중 국제 결혼이 2,885 건(35.9%)로 3 건 중 1 건을 차지하며, 농어촌의 신 가족유형으로 정착
-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이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 년에는 결혼대상으로 베트남 여성이 53% 이상 차지

< 표 II-3 > 농림어업종사자(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건수 (통계청, 2006)³

구분	2004 년					2005 년				
국적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건수	1,814	560	879	195	180	2,885	1,535	984	198	168
비율	100.0	30.9	48.5	10.7	9.9	100.0	53.2	34.1	6.9	5.8

나.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주요 특성

국내 결혼 이주 여성수는 2005 년 말 기준으로 66,659 명이며, 이 중 재중동포 및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표 II-4 >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2005.12) (단위:건, %)

출신국	인원수	출신국	인원수
재중동포	27,717(41.6)	태국	1,447(2.2)
중국	13,401(20.1)	몽골	1,270(1.9)
베트남	7,426(11.1)	러시아	923(1.4)
일본	7,145(10.7)	우즈베키스탄	896(1.4)
필리핀	3,811(5.7)	기타*	2,623(3.9)

※ 기타: 구(舊)소련, 동유럽, 아시아저개발국, 아프리카, 중남미 등 포함 (자료:법무부)

※ 법무부의 체류 현황은 '현재 국내거주 여성결혼 이민자 수(數)' 를 나타내고 있음.

※ 통계청 통계는 출국한 자, 사망한 자를 포함하고 있어 법무부 자료가 적함

- 국내거주자의 75%는 도시(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

³ 통계청(2006.3). 2005년 혼인 및 이혼 통계 결과

- 경기 및 인천에 31.8%, 서울 25.1%에 다수 거주
-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
- 국내로의 결혼 이주가 1990 년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기’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 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도 증가

다.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역사

1980 년대부터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되었으며, 1990 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하게 되었다. 특히 한중 국교수립 이후 조선족들의 취업이주 및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 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3 년 7 월 1 일 한중 양해각서 폐지로 한국, 중국 어느 일방국에서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지역별 체류 현황

-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 세 정도로 연령 차이가 큼
- 남편이 10 살 이상 연상인 경우가 전체의 34%를 차지, 베트남(72%), 몽골(60%), 구소련(57%), 재중동포(37%) 순으로 연령차이 극심
- 이는 국제 결혼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남편이 10 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60%를 초과하는데 기인(복지부 실태조사, 2005)
- 현재 초·중·고 재학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수는 6,695 명임(교육부, 2006.4)
- 이 중 초등학생이 87.4%로 대부분 차지(중 10.2%, 고 2.4%)
- 2003 년 이후 국제결혼 증가로 2010 년경부터 학생수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그림 II-1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별 체류현황(법무부, 2005)

2.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현황

가.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의 추진 사례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추진 사례를 ‘여성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결과 보고서(2006)’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006 년 4 월 19 일부터 시작하여 12 월 15 일까지 대략 8 개월 동안 전국을 5 개 권역(서울/경기권, 대전/충청권, 대구/경상권, 광주/전라권, 강원도권)으로 나누어 (사)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연대의 주 센터 및 농협의 (사)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지역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사)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연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또한 강원도의 경우는 방대한 지역을 활용하기에는 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옥천한국어학당이 관리기관으로 본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5 개 권역별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5 개 권역별 운영기관의 선정은 아래와 같다(여성가족부, 2006).

< 표 II-5 > 지역별 사업운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기관

지역	운영기관명	내용
서울/ 경기권	서울베들레헴 어린이집	서울베들레헴센터는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소속으로 결혼이민가정자녀만을 위한 24 시간 보육 어린이 집으로 2 세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인천기쁨의 집과 협력을 하고 있어 서울/경기권 관할 가능
대전/ 충청권	대전모이세	대전모이세센터는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소속으로 대전,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결혼이민가족 지원
대구/ 경상권	한우리 가족사랑센터	한우리 가족사랑센터는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소속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그 외의 활동 경험이 있음
광주/ 전라권	나주결혼이민 가족지원센터	나주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숫자가 많고 또한 (사)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소속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력이 다양하고 많으며 왕성한 활동 중
강원권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강원도 지부	강원도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농협의 조직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을 통해 본 서비스 지원

1)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의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

가) 취지

한국어 교육을 받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가족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본 교육 실시하였다.

나) 사업내용

여성가족부 발행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초급)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부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어교육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단절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다) 찾아가는 서비스 수혜자 (전국통계)

< 표 II-6 >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수혜자 수

(단위: 명, 회)

구분	가정수		경감	한국어 지원	다문화 지원	상담 지원	자녀 지원	총계	
	예정	실행						예정	실행
서울/경기권	30	41	△11	208	80	50	72	300	410
대전/충청권	30	34	△4	303	14	21	23	300	361
대구/경상권	30	26	▽4	229	26	16	10	300	281
광주/전라권	30	30	0	273	52	20	20	300	365
강원권	30	47	△17	492	232	0	252	330	976
소계	150	178	△28	1,505	404	107	377	1,530 (100%)	2,393 (156%)

* 여성가족부(2006). 여성결혼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전국 결과 보고

라) 한국어교육 수혜자 현황 (전국통계)

(1) 국가별

✧ 한글교육의 수혜자는 필리핀, 베트남의 수혜자들이 가장 많으며, 일본, 중국 순.

< 표 II-7 > 한국어교육 수혜자 출신국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크	몽골	기타	계
서울/경기권	0	0	9	10	1	0	0	0	1	21
대전/충청권	0	0	24	9	0	4	0	0	0	37
대구/경상권	4	1	4	16	0	0	0	0	0	25
광주/전라권	2	1	6	19	0	2	0	0	0	30
강원권	2	13	20	9	2	0	0	0	0	46
소계	8	15	63	63	5	4	0	0	1	159
비율	5%	10%	39.5%	39.5%	3%	2.4%	0%	0%	0.6%	100%

(2) 연령별

✧ 한글교육 수혜자의 연령은 20대 초반이 많았으며, 또한 30대 초반도 비율이 높음

< 표 II-8 > 한국어교육 수혜자 연령별 분포

(단위: 명)

구분	20세 미만	20-25	26-30	31-35	35세 이상	계
서울/경기권	0	15	0	6	0	21
대전/충청권	2	17	9	9	0	37
대구/경상권	3	16	1	1	4	25
광주/전라권	2	13	7	8	0	30
강원권	1	10	4	31	0	46
소계	8	71	21	55	4	159
비율	5.5%	44%	13%	34%	3.5%	100%%

(3) 자녀 수

✦ 한글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많았으며, 자녀의 수가 3명인 가정도 있음

< 표 II-9 > 한국어교육 수혜자 자녀수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서울/경기권	2	9	4	6	0	21
대전/충청권	16	11	5	3	2	37
대구/경상권	10	11	4	0	0	25
광주/전라권	13	13	2	1	1	30
강원권	0	23	13	8	2	46
소계	41	67	28	18	5	159
비율	27%	42%	17%	11%	3%	100%

(4) 거주기간

✦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살펴보면 4년 이상인 가정이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년 이상~2년 미만인 가정

< 표 II-10 > 한국어교육 수혜자 거주기간별 분포

(단위: 명)

거주기간 지역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계
서울/경기권	0	3	14	4	0	0	21
대전/충청권	2	4	10	9	3	9	37
대구/경상권	7	4	7	3	1	3	25
광주/전라권	7	10	6	1	2	4	30
강원권	1	9	3	1	4	28	46
소계	17	30	40	18	10	44	159
비율	11%	19.5%	24.5%	11%	6.5%	27.5%	100%

마) 한국어교육 수혜자 평가

(1)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 ✦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이 가정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육의 지원과 확대가 절실

< 표 II-11 > 한국어교육 수혜자 사용언어별 분포

(단위: 명)

구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총계
서울/ 경기권	20	0	1	0	0	0	21
대전/충청권	21	1	0	0	0	8(혼용)	30
대구/경상권	25	0	0	0	0	0	25
광주/전라권	28	0	2	0	0	0	30
강원도	46	0	0	0	0	0	46
소계	140	1	3	0	0	8	152
비율	92.2%	0.6%	2%	0%	0%	5.2	100%

(2) 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경로

- ✦ 교육에 대한 정보로는 결혼 이민가족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부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센터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표 II-12 > 한국어교육 수혜자 정보수집 경로별 분포

(단위: 명)

구분	광고	인터넷	교회	관공서	남편	단체기관	기타	계
서울/경기권	0	0	0	0	0	21	0	21
대전/충청권	0	0	2	0	1	24	3	30
대구/경상권	0	2	0	11	3	0	9	25
광주/전라권	0	0	3	2	6	19	0	30
강원권	0	0	0	0	3	43	0	46

소계	0	2	5	13	13	107	12	152
비율	0%	1.5%	4%	8.5%	8.5%	69.5%	8%	100%

(3)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 ✦ 존댓말, 한 단어의 뜻이 다른 것
- ✦ 듣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음
- ✦ 시부모님과 자녀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음
- ✦ 문장을 길게 이야기할 때 어려웠음
- ✦ 관습차이로 어려웠음
- ✦ 발음, 쓰기가 어렵고 언어의 뜻 자체가 어려웠음
- ✦ 문법변화, 조사 사용이 어려웠음

(4) 한국어 교재 수준에 대한 의견

- ✦ 한국어교재 수준에 대하여 대부분 “적당하다(61.5%)고 응답했으나 “어렵다 (31 %)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교재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음

< 표 II-13 > 한국어교육 수혜자 교재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너무 쉽다	적당하다	어렵다	계
서울/경기권	0	16	5	21
대전/충청권	1	20	9	30
대구/경상권	2	16	7	25
광주/전라권	3	15	12	30
강원권	5	27	14	46
소계	11	94	47	152
비율	7.5%	61.5%	31%	100%

(5) 한글 교재 내용에 대한 의견

- ✦ 비교적 좋은 편
- ✦ 한글교재의 기준조정이 필요
- ✦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좋겠음
- ✦ 그림과 색깔이 있어 보기에 좋음

(6) 후속교육의 필요성은?

- ✦ 수혜자의 96%가 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10회 교육에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차후에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표 II-14 > 한국어 후속 교육 필요성 분포 (단위: 명)

구분	필요하다	잘 모르겠다	필요성을 못느낀다	계
서울/경기권	21	0	0	21
대전/충청권	30	0	0	30
대구/경상권	21	3	1	25
광주/전라권	28	2	0	30
강원권	46	0	0	46
소계	146	5	1	152
비율	96.1%	3.25%	0.65%	100%

(7) 교육 이후 한국어 수준은?

- ✦ 한국어 교육 후 대부분(88%)가 ‘향상되었다’로 응답해 교육 기회가 부족했지만 한국어능력 향상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II-15 > 한국어교육 향상 수준별 분포

(단위: 명)

구분	향상되었다	그저 그렇다	더 모르겠다	계
서울/경기권	20	1	0	21
대전/충청권	29	1	0	30
대구/경상권	21	4	0	25
광주/전라권	23	7	0	30
강원권	41	2	3	46
소계	134	15	3	152
비율	88.3%	9.75%	1.95%	100%

(8) 한국어 교육 시 분위기는?

☞ 수혜자 대부분(91%)이 ‘재미있었다’로 응답해 한국어교사들의 역량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음

< 표 II-16 > 한국어교육 시 분위기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재미있었다	보통이었다	지루했다	계
서울/경기권	20	1	0	21
대전/충청권	30	0	0	30
대구/경상권	23	2	0	25
광주/전라권	25	3	2	30
강원권	41	4	1	46
소계	139	10	3	152
비율	91.55%	6.5%	1.95%	100%

(9) 한국어선생님 수업 진행방법은?

- ✦ 한국어교사의 수업진행에 있어서는 ‘좋았다(86%)’가 대부분으로 교사의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II-17 > 한국어교사 수업 진행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좋았다	보통이었다	어색했다	계
서울/경기권	20	1	0	21
대전/충청권	29	1	0	30
대구/경상권	22	3	0	25
광주/전라권	23	7	0	30
강원권	37	8	1	46
소계	131	20	1	152
비율	85.5%	13.85%	0.65%	100%

(10) 향후 교육기회가 있다면?

- ✦ 여성결혼이민자(97%)가 향후 교육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겠다’로 응답해 차후 한국어교육기회 확대가 절실함을 알 수 있음

< 표 II-18 > 한국어 향후 교육기회 이용별 분포 (단위: 명)

구분	받겠다	잘 모르겠다	받지 않겠다	계
서울/경기권	21	0	0	21
대전/충청권	29	1	0	30
대구/경상권	25	0	0	25
광주/전라권	30	0	0	30
강원권	45	1	0	46
소계	150	2	0	152
비율	97%	3%	0%	100%

(11) 한국어교육에 대한 제안

- ✦ 교육기간이 길면 좋겠음
- ✦ 실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도 함께 하면 좋겠음
- ✦ 실제현장으로 나가서 체험하면서 배우고 싶음
- ✦ 그룹으로 지도를 받으면 좋겠음
- ✦ 지속적인 교육이 있으면 좋겠음
- ✦ 모국어가 익숙한 통역자가 있으면 좋겠음
- ✦ 한국어교육방송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음
- ✦ 동요로 배우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음
- ✦ 여럿이 대화하면서 하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음

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성과 및 문제점

(1) 성과

- ✦ 위치, 가정형편, 지역특성 때문에 센터에 나와서 한글교육을 받지 못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
- ✦ 한국어교육의 차원을 넘어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됨으로 가정의 다양한 문제를 쉽게 발견하게 되고 초기에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 ✦ 본국 출신의 여성 결혼 이민자를 활동가로 파견함으로 인해 자신의 언어로 힘든 점을 털어 놓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한국생활의 적응에 큰 도움
- ✦ 방문교육을 통해 수업의 효과도 높일 수 있었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
-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함으로 결혼 이민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점진적으로 가능해지며, 한국정책에 큰 기여
- ✦ 결혼 이민가정의 특성상 남편이나 노부모의 한글 지도가 전혀 없었으나 한글교사의 파견으로 인해 한글지도를 할 수 있어 가족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음
- ✦ 출산관계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산모에게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함으로 출산 전에 배웠던 공부를 연결할 수 있어 학습효과가 있었음.

(2) 문제점

- ✦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져 효과 미비
- ✦ 1:1수업이라 대화문,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짐
- ✦ 교통이 불편한 곳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용이나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하여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한 시간 수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동네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공부방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음
- ✦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가정 외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
- ✦ 본국에서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교재의 활용도가 떨어짐
- ✦ 교육 환경(실내가 너무 어두웠음, 무더위)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 교육 진행하기가 어려움
- ✦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시간관념이 없어서 수업준비를 잘 하지 않아 교육 진행하기가 어려움

나. 농림부의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개요(농림부, 2007)

가) 목적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한다.

나) 추진방향

-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력으로 육성
-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농업인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농촌의 젊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농업인력으로 자원화

- ✦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빠른 정착지원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 농촌사회에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 우리 농촌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열린 의식 제고
- ✦ 2007년에 30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실시지역, 영농교육, 정보화 교육 등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다) 지원대상

- ✦ 농어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중 한국어 교육 등 정착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국어 교육이 요청되나 외부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워 방문교육이 필요한 가정
- ✦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및 자녀 등에 대한 방문교육(소 그룹 포함)을 남편 등 가족이 동의하고 희망하는 자

라) 실시지역

- ✦ 전국 30개 시·군 시범실시
- ✦ 16개 시·도중 농가비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특별시, 광역시 제외

마) 주요 사업 내용 (2007)

- ✦ 방문과 소그룹 형식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지원
- ✦ 방문 교육도우미 지원: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도우미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
- ✦ 1가정에 대하여 1년에 5개월 동안 1주일에 3회 (방문2회, 소그룹1회)한국어 교육 및 소그룹 교육 지원
- ✦ 교육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퇴직한 교사, 공무원, 농협직원 및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봉사경험이 있는 여성 위주로 선발
- ✦ 교육도우미 운영계획
 - 2007년 교육도우미 운영 인원 : 300명 (10명 X 30 시, 군)
 - 도우미 선발 및 관리

- 도우미는 지역자원봉사자, 퇴직한 교사, 공무원, 농협직원 및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
- 선발된 교육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말 교수법, 상담 및 면접기법 등 기본 교육을 마친 후 활동 시작
- 도우미 1인당 지원 농가 수
 - 3가정에 대하여 주3회씩 5개월간 지원
 - 주3회 중 방문교육 2회, 소 그룹 교육 1회
- ✦ 부부교실(생활예절,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가족캠프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 가족으로 원만히 통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각 도별로 한국정착에 모범적인 가정을 선발하여 모국방문 비용 지원 및 선진 영농현장 견학 실시 (연1회)

바) 2007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대상자 선정 분석결과⁴

농림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기 방문교육 지원대상자는 20대, 1년 미만 거주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부가 2007년 하반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방문교육 도우미제도를 이용하는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분류하면 전체 885명 중 베트남 출신이 505명(57.1%)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140명(15.8%)로 뒤를 이었고 중국이 58명(6.6%) 순이다.

연령대도 20대가 647명(73.1%), 30대가 189명(21.4%), 40대가 49명(5.5%)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별로 따져보면 1년 미만이 389명(44.0%), 1~2년 사이 255명(28.8%), 3년 이상이 135명(15.2%) 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농촌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며 “내년에는 30개 시,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초기 적응단계를 지난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영농기술 교육, 영농 컨설팅 지원 등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⁴ 농림부(2007). 2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대상자 선정, 농림부 보도자료

총 선정 인원은 상반기 896명, 하반기 885명으로 총 1,781명이다.

< 표 II-19 > 출신국가별 선정 인원

(단위: 명)

구분	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태국	몽골	러시아계	기타
상반기	896	462	179	82	31	62	28	24	17	11
(%)	(100)	(51.4)	(20.0)	(9.2)	(3.5)	(7.0)	(3.1)	(2.7)	(1.9)	(1.2)
하반기	885	505	140	58	57	39	32	19	21	14
(%)	(100)	(57.1)	(15.8)	(6.6)	(6.4)	(4.4)	(3.6)	(2.1)	(2.4)	(1.6)
합계	1,781	967	319	140	88	101	60	43	38	25
	(100)	(54.3)	(17.9)	(7.9)	(4.9)	(5.7)	(3.4)	(2.4)	(2.1)	(1.4)

< 표 II-20 > 연령별 및 거주기간별 선정 인원

(단위: 명)

구분	계	연령별			거주기간별			
		20대	30대	40대	1년미만	1-2년	2-3년	3년 이상
상반기	896	559	251	86	304	320	128	144
(%)	(100)	(62.4)	(28.0)	(9.6)	(33.9)	(35.7)	(14.3)	(16.1)
하반기	885	647	189	49	389	255	106	135
(%)	(100)	(73.1)	(21.4)	(5.5)	(44.0)	(28.8)	(12.0)	(15.2)
합계	1,781	1,206	440	135	693	575	234	279
	(100)	(67.7)	(24.7)	(7.6)	(38.9)	(32.3)	(13.1)	(15.7)

< 표 II-21 > 농가 및 신규 여부

구분	계	농가 여부		신규 여부	
		농가	비 농가	신규	계속
상반기 (%)	896 (100)	682(77.1)	214(22.9)	896(100)	-
하반기 (%)	885 (100)	658(74.4)	227(25.6)	651(74.6)	234
합계	1,781(100)	1,340(75.2)	441(24.8)	1,547	234

3. 정부 정책 현황

정부 정책 현황은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 교육인적자원부 외) 자료를 발췌하여 제시

가. 정부 정책추진 현황 및 한계

1) 현황

가) 2005 년 이후 체류불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1 차 지원대책(2005 년 8 월)과 생활상의 지원에 중점을 둔 2 차 지원대책(2005.11 월)을 마련 및 시행

- ✦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정확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사기결혼, 언어 및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및 혼인파탄 등 피해 사례 발생
- ✦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혼 또는 별거로 여성의 체류자격 유지 불가능한 사례 발생 등

나)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체류자격 변경(거주비자 F2 -> 방문동거 F1)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던 점 등을 개선

- ✦ 2005 년 9 월에 2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
- ✦ 배우자의 사망 및 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입증서류를 구비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거주자격(F-2)으로 체류 허가
- ✦ 체류, 국적관련사항, 가정 및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등을 담은 리플렛을 2005 년 하반기에 제작해 외국인 등록과정에서 일부 배포

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여성결혼 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제외(2005 년 8 월)

- ✦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긴급 복지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 포함

-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
-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외국어 리플렛을 제작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3 만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하고,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 (126 개소)를 통해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 ✦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를 위하여 여성 긴급전화 1366 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
- ✦ 한국생활 필수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등 제공과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어를 포함한 10 개 언어로 문화가이드북을 6 만부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160 여개 외국인 관련 지원단체에 배포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화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시범사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실시
- ✦ 이 밖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 △한국어 교재 보급 및 한국 생활정보 제공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도 추진

2) 한계

가) 국제결혼의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은 미비

- ✦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 및 사법당국의 관리감독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국제결혼 및 비자발급과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재외공관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이루어져 혼인사증 발급단계에서 사기결혼, 현지에서 합방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등을 차단하는데 한계

나)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 ✦ 각 부처의 단편적인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정책효율성 저하
- ✦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공공전달 체계 및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 간 네트워크 구축 미흡

다) 여가부와 문화부, 지자체 주관으로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범사업 수준이고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규모에 비해서도 매우 미미

라) 법률적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결혼이민자업무책임자에 대한 교육방안 필요

-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 및 차별예방 의식을 증진시키고, 업무역량 강화
- ✦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보건, 의료, 복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과 태도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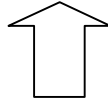
마)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및 간이귀화 신청과정 등에서 배우자 귀책 사유 입증의 어려움으로 불법 체류자로 전락가능성 잠재

- ✦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 및 의료 시스템에 미숙하고, 국내에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입증요건 완화방안 마련 필요

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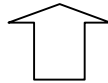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2) 기본방향

차별과 복지

3) 정책과제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절차표준화 등]

안정적인 체류지원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강화, 전용 핫라인 설치 등]

조기적응 및 체류지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 교육실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지원기능 강화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산전·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기초생활 보장, 무료진료 지원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일반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등]

추진체계 구축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4) 주요 관련정책 과제

가)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1)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1 단계 [외국인 등록증 발급 단계]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정착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자료집(Information Kit) 제공

✧ 2 단계 [정착단계]

- 출신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 및 진도별) 개발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 제작, 양국어로 된 문화이해 프로그램 개발(※ 2005 년 6 만부(1 개 언어) -> 2006 년 4 만여부 (스리랑카, 미얀마 등 7 개 언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하거나 안부 전화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최신 정보 제공
-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활용역량 제고
- 지자체 및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15 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실시(2006)

< 표 II-22 > 연도별 교육목표(정통부)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교육기관수(누적)	15	30	40	50	50	50
교육목표 (명)	720	2,160	2,880	3,600	3,600	12,960

(2)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 ✧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사업(Host Program)을 통한 신규 입국자 조기정착 지원
- ✧ 최근 1 년 내 신규 입국자와 자원봉사자간 상담(Mentoring) 제도 도입
- ✧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 ✧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도기적으로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실 운영 및 방문교육 시범 실시

- ✦ 읍, 면, 동 단위로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민자에게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 단체학습인 경우 동행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인력 배치
- ✦ 한국어세계화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등 기존 한국어 교육 실시기관과 연계
 - EBS 등을 통한 언어, 문화이해 교육 실시
- ✦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언어권(필리핀, 베트남 등)부터 교육프로그램 편성, 단계적 확대 추진
 - 가족 내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 지자체의 혼인신고 접수창구에 가칭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교육신청서’를 배치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등 소외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양육문제, 교통문제, 가족의 반대 등 가정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한국어 교육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민자 가정방문
- ✦ 이민자 가족의 문제 상황에 맞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복지관 및 재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관계자, 보건소 의료진 등이 방문
 - 이민자 가정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계획을 세운 후, 공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사례 관리

나)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지원

(1)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 ✦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 완화 : 현행 교과서를 검토 및 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
-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다(多) 문화 교육요소 반영 : 다인종, 다문화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완자료를 초·중·고에 보급 (2006년 하반기)
- ✦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요소 반영 (예정)

(2)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강화

-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공 및 대화채널 구축
- ✦ 교사 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 취학 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학교 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언어로 제작 및 배포
- ✦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3)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 ✦ 한국어(KSL) 교육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 집단 따돌림 예방

- ✦ 학급중심 소집단 그룹활동 활성화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5)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 ✦ 이민자 자녀를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으로 확대, 이민자 가족 등을 외국인 밀집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통해 지원 (`05년 800 개소->`06년 902 개소)

다. 민·관의 교육현황

1)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 가) 여가부는 2006 년부터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51 개소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자녀 상담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
- 나) 복지부, 문화관광부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보건, 진료서비스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중
- 다) 전국 8 개 시·도 및 관내 시·군·구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정)

2)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 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KOSIAN EDU PLAN)’을 수립 및 추진 (2006.2)하는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임
- 나) 외국인 근로자센터 등 민간단체들은 현재 운영중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까지 확대하고,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안학교 설립 추진

4. 외국 사례

가. 사회적 편견 해소

1) 독일

- 외국인 가족에 대한 차별이 편견이나 인습으로부터 나온다고 인식
-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9 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자, 청소년 관련종사자들에게 현장중심적인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2) 호주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이민자
-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기 위해 정부에 ‘이민 및 다문화부’ 설치
-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의 편견을 벗는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나. 자녀의 교육 및 사회통합

1) 독일

-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외국인 학생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타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호 문화간의 배움, 反인종차별주의 훈련, 이민 청소년들의 만남 주선 등 지원

2) 대만

- 교육부에서 다국어 교재 편찬 및 제공
- 2003 년 결혼 이민자 자녀를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교에서 개별지도 지시
- 공립유치원 및 탁아소에 우선 진학을 배려하고, 결혼이민자 자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정부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지원

-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지망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인교육반의 개설, 결혼이민자 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 훈련 및 참고교재 개발

위와 같은 선진국 사례들을 통해 독일, 대만 등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취업, 신체안전, 사회복지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적대감 및 편견 해소정책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 예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언어 소통을 위한 공무원 고용 등을 들 수 있겠다.

5.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의사소통기능 요구 조사 및 분석

1) 요구 조사의 필요성

과거 전통적인 교수·학습법에서는 학습자 요구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의사소통식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학습자가 외국어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이에 대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학습자의 흥미, 동기 등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교육할 때 효과가 반감하듯이 교재 역시 학습자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 교재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민현식, 2000).

안설희(2003)는 잠재적인 학습 집단인 이주노동자 집단에 일반적인 학습자 집단의 교육과정으로 그대로 반영한다면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적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보고,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해하고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재 개발이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요구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요구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기능요구 조사는 Li and Richards(1995)의 요구조사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요구에 맞게 자체 제작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의사소통 기능 요구 항목은 다음과 같다(안설희, 2003 재인용).

설문지에 사용된 의사소통기능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전화하거나 받기, 대중매체 이용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음식 주문하기, 언론매체 읽기, 물건사기, 미용실 이용하기, 이사하기, 아픈 증상 말하기(병원, 약국), 우체국 이용하기, 자녀의 학교생활 돕기, 취미 활동하기, 문화 이해하기, 구직활동하기, 여성 센터 등 교육기관 이용하기,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항의하기, 길 묻기, 도움 요청하기, 여행하기, 가족과 대화하기, 한국노래 배우기, 인터넷 검색하기, 종교 활동하기, 면접보기, 자녀의 학교선생님 만나기, 동사무소나 구청/출입국 관리소 등 관공서 가기’ 이다.

가) 의사소통 기능별 대화장소

의사소통 기능별 표현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지므로 장소와 대화자 등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고서는 표현들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 요구하는 의사소통 기능별 대화 장소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실내와 실외로 나누고 실내는 개인생활과 공공생활로 나누어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표-23>과 같다.

< 표 II-23 > 의사소통 기능의 하위 목록

구분		의사소통 기능 세부항목	장소(%)
실내	개인생활	전화하거나 받기	집(31%)
		라디오나 TV 시청하기	
		남편과 대화하기	
		한국노래 배우기	
		인터넷 검색하기	
		자녀의 학교생활 도와주기	
		신문이나 잡지 읽기	
		이사하기	
		이웃과 대화하기	
	공공생활	물건사기, 미용실 이용하기	상점(7.1%)
		음식 주문하기	식당(3.6%)
		구직 활동하기, 직장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 항의하기, 동료와 이야기하기	사무실(10.7%)
		증상말하기	병원, 약국(3.6%)
		우체국 이용하기	우체국(3.6%)
		자녀의 학교 선생님 만나기	학교(3.6%)
		은행 이용하기	은행(3.6%)
		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하기	교통시설(3.6%)
		종교 활동하기	종교기관(3.6%)
		교육기관 이용하기	한국어교육기관(3.6%)
		낯선 한국문화 이해하기, 취미활동하기	기타(장소 불분명) (10.7%)
실외	공공생활	길 묻기, 주위에 도움 요청하기	거리(7.1%)
		가족과 여행하기	공원, 동물원(3.6%)

실외 장소의 경우에는 ‘길거리’와 ‘공원, 동물원’이 각각 7.1%와 3.6%를 차지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 없는 두 장소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급 한국어를

학습하는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낯선 장소로의 외출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내 장소의 경우는 ‘집’이 31%로 의사소통 기능 요구의 1/3 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의 의사소통 기능의 요구의 주된 장소는 ‘집’이며 이는 곧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대화를 위한 의사소통 기능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요구 순위에 따른 대화 상황

의사소통 기능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요구를 장소와 대화자와의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각 문항은 1 점~5 점 척도로서 ‘5 점=꼭 필요하다, 4 점=자주 필요하다, 3 점=필요하다, 2 점=가끔 필요하다, 1 점=필요없다’ 로 측정되었다.

< 표 II-24 > 의사소통 기능 요구 순위에 따른 장소와 대화자 분석

순위	장소	대화자	의사소통 기능	평균
1	집	기타	전화하거나 받기	4.28
2	집	기타	라디오나 TV 내용 이해하기	4.27
3	집	남편/아내 부모/자녀 시부모/며느리	남편이나 가족과 대화하기	4.26
4	집	기타	한국 노래를 부르거나 듣기	4.15
5	기타	기타	낯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4.14
6	병원	의사/환자	병원을 이용하기	4.13
7	약국	약사/환자	약국을 이용하기	4.12
8	가게	고객/점원	가게에서 물건 사기	4.11
9	교통시설	기타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4.09
10	학교	교사/학부모	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4.03
11	은행	직원/개인	은행가기	4.01
12	기타	기타	가족 여행가기	3.98
13	직장	구인자/구직자	직장을 얻기 위한 구직활동하기	3.84
	직장		취직하기 위해 면접보기	
14	교육기관	교사/학생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	3.81
15	식당	고객/점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3.8
16	관공서	공무원/개인	동사무소나 구청, 출입국 관리소 등 관공서 가기	3.78
17	집	부모/자녀	자녀의 학교생활 돕기	3.76
18	우체국	직원/개인	우체국을 이용하기	3.7
19	길거리	낯선 사람/낯선 사람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기	3.69

20	집	기타	한국어로 인터넷 하기	3.6
21	집	기타	신문이나 잡지, 책을 읽기	3.57
22	기타	기타	취미활동 하기	3.54
23	길	낯선 사람/낯선 사람 아는 사람/아는 사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3.49
24	집	아는 사람/아는 사람	이웃과 대화하기	3.46
25	집	낯선 사람/낯선 사람 부모/자녀 남편/아내	이사하기	3.44
26	미용실	고객/점원	미용실 가기	3.34
27	직장	사장/직원	직장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행위에 항의하기	3.17
28	종교기관	기타	종교 활동하기	3.04
29	직장	아는 사람/아는 사람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기	2.64

평균 4.00 이상의 자주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인 상위 11 개 항목을 살펴보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라디오나 TV, 영화를 볼 때’, ‘남편이나 가족과 이야기 할 때’, ‘한국 노래를 부르거나 들을 때’, ‘낯선 한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시장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만날 때’, ‘은행에 갈 때’,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이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 항목은 평균 4.00 을 넘기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는 외국인 주부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가 전체 102 명 가운데 75 명(73%)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 주부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기능을 분석해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서 주된 의사소통기능의 장소는 집이며, 그 외에 병원이나 약국, 시장, 가게, 교통시설, 자녀의 학교, 은행이다.

요구기능은 전화 걸거나 받기, 라디오나 TV 내용 이해하기, 남편이나 가족과 대화하기, 한국 노래를 배우기, 낯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기, 시장이나 가게에서 물건사기, 택시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만나기, 은행 이용하기, 가족과 여행하기 등이다.

대화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대화 시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생활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을 중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기’는 가장 낮게 요구하는 의사소통기능 항목이었다. 공공생활 공간에서는 고객과 점원, 의사(약사)와 환자, 교사와

학부모, 직원과 개인, 구인자와 구직자, 낯선 사람과 낯선 사람,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 등 다양한 관계 설정의 의사소통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 교재는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라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최신의 언어 교수법 이론을 토대로 하여 목표 언어를 숙달하는데 필요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해 놓은 교수, 학습 자료로서 실제 교수,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안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어 교과서들은 최신의 언어 교수법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키는 측면에서나 실제 교수, 학습 과정을 조절하고 안내하는 기능의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 기존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

기존의 한국어 교재는 ‘아래에서 위로’의 정보 처리 과정에 입각한 문법적 교수요목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문지방이 높은 낯선 언어이다. 한국어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가장 어렵다는 언어로 분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평가 받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가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의 이면에는 개별언어로서의 한국어 자체가 지닌 교착어적 특성으로 관형형, 접속형, 체언형, 종지형, 조동사 구성, 격조가, 보조사 등의 문법적 형태가 많아 학습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한국어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낯선 언어’라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어가 ‘낯선 언어’라는 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영어와 같은 친숙한 언어에 대해서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기본 어휘나 최소한의 문법 지식과 같은 선행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가 문형 중심의 문법적 교수요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한국어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한국어 교재는 문법적 교수요목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청각구두식 접근방법(Audiolingual Approach)에 기반하여 개발된 것들이 많았다. 청각구두식 접근방법은 군대식 교수법(Army method)의 성과와 행동주의 심리학,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기초로 개발된 지도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목표 언어를 숙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목표 언어의 구조 체계를 다루기 쉬운 기본 문형(basic pattern)의 형태로 잘게 나누어

목록화한 다음, 이 문형들을 중심으로 기본문을 만들고 이것으로부터 유사한 다른 문장표현으로 대치, 변형, 확장해 나가는 기계적인 훈련을 자동화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목표 언어에 숙달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형 중심의 체제를 고수하고 상향식 정보처리과정에 입각한 문법적 교수요목에 의해 구성된 한국어 교재는 객관적인 지식을 교수자가 전달하기만 하면 그 지식은 의미의 손상 없이 그대로 학습자의 머리 속으로 입력(transfer)된다고 가정하는 전통적인 학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에 숙달될 때까지 부단한 인내와 노력, 모방과 반복, 암기만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인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학습자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밝혀내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과 교섭하면서 매우 능동적으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프레임(frame), 스크립트(script) 이론 등 학습자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하향식 정보처리 과정에 기초한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2) 한국어 교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

가) 한국어 교육에서의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에서의 언어교육은 무엇보다 학습자가 지닌 창조적인 언어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인지주의적 접근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어를 배우는 성인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어휘나 구조에 대한 스키마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살아온 경험에 의해 축적된 세상사 지식(knowledge of the world)에 관한 스키마는 풍부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프레임과 스크립트 이론

프레임은 세상에 대한 전형적인 지식의 단위로 고정되어 조직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개념이다. Charniak(1979)는 이 개념을 토대로 담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 접한 내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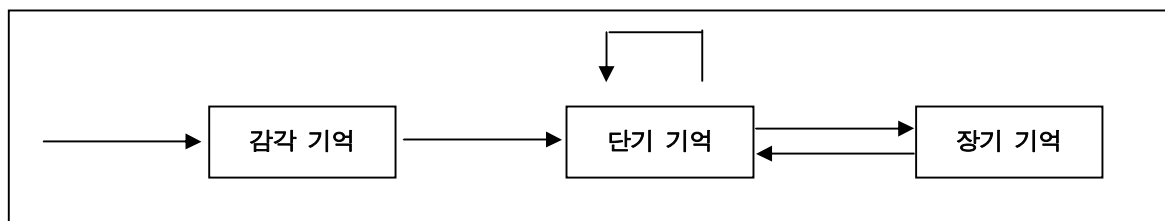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조직망(framework) 안에서 맞춰 나가는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에 의하면 텍스트 처리자는 텍스트를 해석해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 기억 창고로부터 그 상황에 맞는 프레임 구조를 선택, 인출하여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스크립트란 정형화된 사건 구조를 갖는 상황으로서 '사건/행위의 집합성'과 함께 '사건/행위들의 선형적 방향성'을 특성으로 한다. 프레임이 단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의 정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면, 스크립트는 프레임이 제시하는 '틀'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 동적 자료 구조로서 '시간적/인과적 계기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영화 관람'이라는 스크립트는 '관람할 영화를 결정한다 -> 상영 극장을 알아본다 -> 누구와 언제 같이 결정한다 -> 티켓을 구입한다 -> 극장에 들어간다 -> 좌석번호와 위치를 확인한다 -> 영화 관람한다 -> 영화 상영 종료 후 영화관 밖으로 나온다'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행위의 연속적 집합(Schank&Abekson:1977)인 것이다.

'세상사에 대한 지식'은 프레임이나 스크립트와 같은 단일하면서도 손쉽게 접근 가능한 단위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적절한 맥락만 주어진다면 쉽게 활성화되어 새로 접하게 되는 텍스트의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틀(framework)'로 작용하게 된다.

(2) 텍스트 정보 처리 과정

텍스트 정보 처리와 관계된 인간의 사고과정을 크게 다음에 제시된 세 가지 기억 기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그림 II-2 > 사고과정 모델(천경록, 1998:2)

감각 기억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잠시 저장해주는 임시 저장고의 역할을 하며 단기 기억에서는 감각 기억에서 받아들인 정보와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 정보를 통합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의 화살표는 처리된 정보가 장기기억으로 이송되어 저장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역으로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오는 화살표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회수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단기 기억 위에 표시된 화살표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 정보를 통합하거나 연상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이란 학습자의 두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능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인지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첫째, 일반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교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지, 사회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지, 학습자의 학습 심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등이다. 한국어에 대한 스키마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외국인 성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사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맥락의 제시 여부일 것이다.

둘째, 교재는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즉, 교수(teaching)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재를 평가해 본다면, 한국어 교재는 아래에서 위로(bottom-up)의 상향식 정보처리과정에 기초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사용의 맥락의 요소가 생략된 채 문형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는 부적절한 교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셋째, 바람직한 교재의 구성은 명확한 학습 도달 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 및 조직하여 제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일련의 교수, 학습 과정을 안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때 한국어 교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단위 구성 체제를 필요로 한다. 우선 ‘도입 준비 단계’에서는 그 단원의 중심 내용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단원명과 함께 주요 학습 내용 및 학습 목표가 제시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인식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시 단계’에서는 해당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을 적절한 학습 방법과 절차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조직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음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앞서 배운 내용을 강화하고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활용 단계’에서는 실제적이면서도 유의미한 과제(task)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 및 확인하고 단원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됨으로써 학습자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언어 사용 맥락, 의미, 과제/기능, 문법적 요소, 어휘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언어 사용 맥락(contexts)이다.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인 한국어 숙달도를 배양하려면 무엇보다 학습 초기 단계부터 한국어라는 목표 언어의 문화권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다양하면서도 유의적인 언어 사용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는 진공 상태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운용되는 특정 발화 상황(은행, 공항, 우체국, 식당, 병원 등)에서 사용됨직한 어휘와 구조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미(notion)이다. 학습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개념 범주나 배경 지식과 관련 지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학습자의 배경지식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자료 구조인 ‘프레임’이나 ‘사건/행위의 시간적 계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인 자료 구조인 ‘스크립트’ 등의 단위 구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미 범주나 배경지식 범주(취미, 계절과 날씨, 직업, 음식, 옷차림, 여행, 하루 일과, 레스토랑 가기, 병원가기, 쇼핑하기 등)를 중심 단위로 하여 교재를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시각적 단서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삽화를 제시한다거나 언어적 단서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프레임 자극 어휘 목록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제/기능(task/function)이다. 언어 숙달도의 핵심은 실제적인 발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기능-인사하기, 질문/대답하기, 설득하기, 경고하기, 사과하기, 찬성/반대하기, 제안/거절하기 등을 실제적인 언어 자료와 같이 교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문법적 요소(grammar)이다. 문법적 요소는 학습 초기 단계부터 정확성(accuracy)의 측면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문법적 요소는 가능하면 문형의 형태로 제시하되 문법 현상 위주로 설명하기보다는 L1 과 L2 의 차이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방향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법적 요소를 그 자체로 제시하기보다는 유의미한 의사소통적 맥락 속에서 적절히 융합시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교육 내용이 단계적인 나선형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히 반복, 심화, 확장되도록 면밀하게 교육 내용을 계열화하여 조직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섯째, 어휘(vocabulary)이다. 상위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는 어휘들의 목록을 제시해야 학습자의 기억망(memory network)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라는 주제로 구성된 단위이라면, 학습자는 ‘통장, 예금, 저축, 현금, 송금하다’ 등의 구체적인 어휘 목록에 의해 자극을 받아 ‘은행’이라는 프레임을 활성화시켜 텍스트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언어 숙달도 배양을 위해서는 위에서 본 다섯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 가지 언어 기능을 함께 통합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한국어 교재 개발시 내용적 측면 못지 않게 중시해야 할 것이 단위 구성 체제의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도입 준비 단계(Warming up) -> 제시 단계(Presentation) -> 연습

단계(Practice) -> 실제 활용 단계(Use) -> 확인 및 점검 단계(Follow up)'로 이어지는 교재 구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Ⅲ. 한국어 교육 교재 분석

1. 한국어 교재 분석 개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한국어 교재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그 동안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들이 대학 기관의 주도하에 많이 개발이 되었다면, 이제는 특수 목적 한국어들이 서서히 개발되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교재 분석은 주로 국제 결혼으로 국내에 정착하게 된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재 선정은 주로 이주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재를 선택하였지만, 보다 나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기관교재와 독학용 교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 분석의 목적은 이주 여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분석으로 기관 교재 및 독학용 교재는 본 분석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평가될 수 있다.

분석 대상이 된 교재는 다음과 같다.

- ① 농림부 - 우리 엄마의 한국어
- ② 배재대 & 삼성 -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 ③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초급/중급)
- ④ ㈜다락원 - Korean made easy for beginners
- ⑤ ㈜다락원 & 아리랑TV - Arirang Koreana Basics(1, 2)
- ⑥ 여성가족부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첫걸음/초급/중급)
- ⑦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말이 트이는 한국어(I ~ V)
- ⑧ 한림 - 초급 한국어(말하기, 쓰기)
- ⑨ 문진미디어 - Active Korean(1, 2)
- ⑩ 넥서스 - Survival Korean(초급, 문법, 어휘)

교재 분석은 각 교재의 내용과 구조를 분석한 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요소별로 평가하였으며, 분석 항목별 가중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할 경우와 방문 학습용 교재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한국어 교재 분석 결과

가. 농림부 : 우리 엄마의 한국어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 지향하는 교수법 : 통합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가정 및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글을 학습한 기초학습자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3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4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3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4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3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4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2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3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4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2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1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1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3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2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1
영역별 학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4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2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3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4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4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1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1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2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2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1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1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학습 평가와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2

피드백 측면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3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1
총점			125

● 총평

주로 농촌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이 교재는 농촌 생활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주민 여성 교육에는 활용도가 높을 듯하다. 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점과 교사용 지침서 등이 제공되고 있는 점은 장점이다. 단, 좀 더 다양한 읽기와 쓰기 장르들이 제공되어야 하며, 연습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문 등을 제공해야 할 듯 하다. 또한, 좀 더 다양한 교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림 등 이미지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여 교수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학습 효과가 떨어질 듯하다. 따라서 방문학습 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관련 플래시 카드나 문형 관련 플래시 카드 그리고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교구 등 다양한 교구가 마련되면 보다 효과적인 방문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듯 하다.

나. 배재대 & 삼성 -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이주 여성 및 국외 한국어 학습 희망자들이 모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보다 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대조언어학적 접근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초급 학습자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외적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1
	구성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1

측면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2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2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2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3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4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4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5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2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2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4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5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4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1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1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3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1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4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1
영역별 학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4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4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4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4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3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2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3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3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3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1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3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학습 평가와 피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3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1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4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4
	총점		132

● 총평

전체적으로 각각의 영역별 활동 등이 다양한 점 등은 참조할 만 하지만 이주민 여성들의 생활 환경이 대부분 농어촌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소재는 국제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 변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내용 구성 및 영역별 구성에서 학습자의 니즈에 맞는 교재를 개발할 수 있을 듯하다. 이 교재의 장점은 8개국의 언어 버전으로 책이 출간되었다는 장점과 활동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영역별 내용연계가 잘 되어 있어 학습에 부담이 덜하다는 것 외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방문 교재는 교실에서 여러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재와는 그 활동 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교사 대 학생 한 명의 1 대 1 학습인지 교사 대 학생그룹의 1 대 다수 학습인지에 따라서도 짝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문화관광부 & 국립국어원 :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낯선 한국어를 쉽게 배워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통합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초급 학습자
- 비교 : 발행처는 여성가족부이나 본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에서 국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표지 같이 발간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3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3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1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3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3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4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4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2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3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2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1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3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4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3
영역별 학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2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3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2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3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1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1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1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4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4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4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4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1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학습 평가와 피드백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2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측면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1
총점			119

● 총평

<첫걸음>에서 한글을 다루고 있어 한글을 연습할 수 있게 배려한 점이 좋지만 한글학습의 체계는 많이 부족한 듯하다. 또한, 간단한 표현을 11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여성의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는 측면에서는 큰 장점인 듯하다.

<중급>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목적에 알맞은 주제나 소재가 돋보인다. 내용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문화를 녹여 놓은 것 또한 이 교재의 장점인 듯하다. 하지만, 듣기 CD와 워크북, 교사용 지침서 및 교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듯 하다.

대상은 명확하지만, 한글학습이 좀더 체계화 되어야 하고 내용 연계가 좀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또한, 발음이나 듣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보충해야 하며, 혼자서 연습 복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 등이 제공되어야 할 듯하다.

라. ㈜다락원 – Korean Made easy for beginners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한국어를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통합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초급 학습자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5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4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4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3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4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4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4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1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4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3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4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5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4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4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3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4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1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4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1
영역별 학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3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1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1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4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3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3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3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3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1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학습 평가와 피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4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3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4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2
총점			137

● 총평

이 교재는 독학용 교재로서는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셀러이다. 친절한 문법 설명과 세련된 편집, 삽화로 학습자의 반응이 좋은 교재이다.

또한, 학습대상이 분명하여 영어권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책이다. 영어권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가 많은 책을 선호한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어느 정도는 두꺼워야 좋은 책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일본 학습자에게 적용시킬 경우에는 분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 학습자의 경우, 무겁고 두꺼운 책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재는 일반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국제이주 여성 대상의 특수목적 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단, 구성이나 내용이 체계적인 점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하다. 특히, 한글 부분이 낯선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쉽고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점 등을 활용하여 부분 부분을 플래시 카드로 적용하기가 편리하며, 대화 제시 등도 상황별 삽화가 적절히 제시되어 있어 그림을 따로 보여주고 대화를 만들어 보게 하는 등의 활용도 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이주민 여성을 위한 교재들이 주로 발음 교육이 약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인데, 발음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설명과 예문을 든 것 또한 참조하면 좋을 듯하다.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기존 교재들은 대부분 학원이나 기관에서 교사의 의존도가 높은 교재이기 때문에 그 설명이 친절하지 않거나 교사가 부교재를 만들어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런 반면 Korean made easy for beginners는 독학용 교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설명과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다. 하지만 독학용이기에 활동 등의 부분은 약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대상 및 사용 환경 등이 적합한 교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마. ㈜다락원 & 아리랑TV - Arirang Korean Basics 1, 2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Arirang TV 에서 방송되는 Let's Speak Korean 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서는 방송을 시청하지 않지만 살아 있는 한국어 말하기 표현을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통합교수법, 의사소통중심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실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초급 학습자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4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4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4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4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3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1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2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3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4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4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3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1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4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1
영역별 학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2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1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1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4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3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1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1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1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1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1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학습 평가와 피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3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2
총점			117

● 총평

이 교재는 아리랑TV의 Let's Speak Korean의 방송교재로 만들어진 책이다. 여러 한국어 학습 방송 중에 높은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던 Let's Speak Korean의 시청자들의 요구에 의해 교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방송교재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간단한 회화를 익히는 초급 회화교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건국대 등에서는 단기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재의 장점은 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학습을 하고 집에서는 온라인으로 방송 보기로 보조 학습을 할 수도 있다.

단, 이 교재는 일반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국제이주 여성 대상의 특수목적 교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구성이나 내용이 단순하고 대화나 문법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단기간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는 적합할 듯하다. 방송 또한 15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초급학습자에게 부담이 없으며, 구문 한국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문을 중점으로 한 회화 교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에 적합하다. 문화 부분에서는 주제와 글감을 가져와서 자문화와 비교해서 말해보게 하거나 써보는 활동 등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

방문 교재 개발시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는 교사와 교재로 1주일에 한 번 정도 학습하고 집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보조학습을 하는 것이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시 가능하다면 1 대 1 학습이 아닌 1대 그룹 학습 환경을 만들어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하다.

바. 여성 가족부 -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첫걸음, 초급, 중급)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결혼 이민자들이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을 키워 가족들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결혼 이민자들은 가정과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움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한글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 초급 및 중급 학습자
- 비고 : 발행처는 여성가족부이나 본 교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에서 국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표지 같이 발간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4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1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3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1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3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2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2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3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2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3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1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3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1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1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1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1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3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3
영역 별 학 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1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3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1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3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1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1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1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3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4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3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2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학습 평가 와 피 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3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2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3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3

● 총평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첫걸음, 초급, 중급 시리즈로 되어 있으나 교재 구성면에서 통일감이 없다. 첫걸음 교재는 첫걸음이라기보다는 한글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를 위한 펜맨쉽의 용도로 보인다.

첫걸음 교재는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재이나 사용된 어휘나 문장들은 결혼 이민 여성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생활 표현을 부록에서 11개 언어로 수록해 놓아 결혼 이민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 교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나 단원당 할당된 페이지수에 비해 너무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급 교재는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기초 어휘를 주로 그림이나 삽화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휘를 다루기 위해서는 각 단원당 제공되는 페이지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별 구성에 일관성이 없고 한 단원에서 사용되는 연습의 양이 적으며, 주로 문법 연습이 실시되고 있다.

중급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읽기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초급에 비해 좀 더 긴 대화문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어휘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쓰기 영역이 없어 따로 쓰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리즈 교재를 방문형 교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플래시 카드와 문장 구성 방법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발음과 듣기 영역이 없어 발음과 듣기를 따로 연습할 수 있는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이 시리즈 교재를 사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초급 교재에 나와 있는 한글 설명 부분과 다양한 한글 자모 플래시 카드를 사용하여 한글 구성에 대해 학습시키면서 첫걸음 교재를 펜맨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초급 교재 본 과는 문법 설명이 취약하고 연습 문제나 읽기, 쓰기 영역에서 배우지 않은 문법이 사용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급 교재를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어휘를 학습할 수 있으며 중급 교재로 들어가면 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중급 교재에서는 짝활동 등의 말하기 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말이 트이는 한국어(I~V)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과제 중심 학습으로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할 수 있다
- 지향하는 교수법 : 의사 소통 중심 교수법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 소통을 하고자 한국어를 배움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초급, 중급, 고급 단계 학습자 모두 가능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3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3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3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4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4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4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4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4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4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3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4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3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2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4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4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3
영역 별 학 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3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3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3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3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4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3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4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4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4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3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3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학습 평가 와 피 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4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3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4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3

● 총평

이 교재는 일반 목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 교재로서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말하기 연습이 가능하며 과제 중심 학습으로 구성되어 의사 소통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교재는 의사 소통 학습자에게 유용하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학습이 진행될수록 단원별 읽기 지문의 난이도도 높아지게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20-30 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교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황 설정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읽기나 컴퓨터 등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경우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편이지만 국제 이주 여성의 경우 농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촌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 소개가 보충되어야 한다. 이 교재에는 전반적으로 발음 학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듣기 활동도 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방문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음 학습과 듣기 학습을 위한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교재에서 사용된 어휘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이기는 하나 국제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는 농촌에서 자주 쓰는 어휘를 학습시킬 수 있는 보조 교재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교재는 주로 상황별 짝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수업에 유용한 교재로 개인 수업에서는 교재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 한림 - 초급 한국어(말하기, 쓰기)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좀 더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지향하는 교수법 : 의사 소통 중심, 과정 중심 학습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특정 집단을 고려하지 않음. 한국어에 관심 있어 배우고자 하는 모든 초급 학습자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초급 단계
- (한글 소개가 약하므로 한글에 대한 선수 학습 경험이 있어야 함)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3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3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2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4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4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4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4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3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3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3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2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4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3
영역 별 학 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4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3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4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3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2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 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2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2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2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 는가?	2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3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학습 평가 와 피 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3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3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 졌는가?	3
총점			138

● 총평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교재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여 교재를 편찬하였다.

과제 중심 학습을 지향하여 단원별로 다양한 과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제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초급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주제와 기능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학습 어휘와 문법, 그리고 연습 활동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교재는 어느 특정 집단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나 한국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범용 교재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교재는 앞으로 중급,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재와 워크북 및 교사 지침서도 발간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발간된다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영역별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합 교재에서는 한정된 분량으로 인해 다루기 힘들지만, 영역별로 출간된 이 교재는 언어 영역별로 단원마다 전, 중, 후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영역별 학습이 가능하다. 매 단원마다 학습을 잘 했는지 확인해 보는 <자기 평가>란이 있는 점은 신선하지만 <자기 평가> 자체가 약간 미흡한 편이다.

이 교재를 사용하여 방문 교재로 개발한다면 네 가지 영역별 집중 학습이 가능하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습에 효과적이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통합 교재를 통해 문법과 표현을 학습하면서 각 언어 영역의 심화 학습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교재 역시 발음, 어휘, 문화 소개 등을 위한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교재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 언어권으로의 번역이 필요하다.

자. 문진미디어 – Active Korean(1, 2)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한국어 성인 학습자를 위한 단기 연수용 교재이다
- 지향하는 교수법 : 의사 소통 중심, 과정 중심 학습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일상 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초급 단계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4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4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3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4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3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3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4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4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3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3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4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3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2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4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3
영역 별 학 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3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4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3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4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4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2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3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3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3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3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4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2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2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3
학습 평가 와 피 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3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2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3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3
총점			142

● 총평

이 책은 총 4 권으로 기획되었으며, 수준은 초급에서 중급이다. 현재 1, 2 권만 출간된 상태이고, 3 권은 집필 중이라고 한다.

단원별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의사 소통 중심 학습에 유용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된다면 단계별 학습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일상 생활의 다양한 어휘를 학습하고 단원마다 추가 표현을 제공하고 있어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초급 교재이면서도 발음 학습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방문 교재 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이 교재는 초급이면서도 간단한 읽기와 쓰기 학습이 가능하며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별 대화 연습에 유용한 편이다. 그러나 일부 상황은 국제 이주 여성이 경험하지 않을 듯한 상황도 있어서 상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교재를 위해서는 어휘와 발음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이주 여성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므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다루어야 하며, 표현 학습 역시 농촌 상황에 맞는 것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통합 교재는 발음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발음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이 교재는 설명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비영어권에서 온 국제 이주 여성이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부록에 있는 문법 설명 역시 영어로 되어 있어서 국제 이주 여성을 위해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번역 없이 그대로 사용하려면 어휘 그림 카드가 필요하다.

차. 넥서스 - Survival Korean(초급, 문법, 어휘)

- 한국어 교수 프로그램의 목표 : 혼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화, 문법, 어휘 영역 학습 교재이다
- 지향하는 교수법 : 문법 번역식 학습에 가까움
-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 일상 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함
- 학습자의 언어 학습 경험 정도 : 초급 단계
- 분석 요소별 평정

매우 나쁨

매우 좋음

1	2	3	4	5
---	---	---	---	---

구분	주요항목	세부 항목	점수
외적 구성 측면	외적 구성	디자인, 편집, 삽화, 글자체가 보기 명확하고 좋은가?	3
		어휘 목록, 색인, 소사전, 콘텐츠 맵을 포함하여 사용이 편리한가?	3
		배치가 명료하여 책에서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가?	3
		테이프, 비디오, 교사용 지침서 등 관련 구성물이 제공되는가?	2
내적 구성 분석 측면	교재 구성 목표	교재가 그 책의 지침이 되는 원리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가?	3
		단원 설정의 원칙이 합리적인가?	3
		단원간에 계열성/난이도가 고려되었는가?	3
	학습 활동	단원 목표 달성에 충분히 효율적인가?	3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였는가?	3
		학습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가?	2
	주제	주제가 다양하여 학습 자료와 활동의 개별화에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학습자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3

		제공된 주제가 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현장 적용성이 있는가?	3
	문법	문법 항목이나 이를 다루고 있는 방식은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3
		문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가능하도록 다루어졌는가?	3
		새로운 문법 항목이 이미 배운 문법 항목과 관련이 있으며 충분한 반복이 되는가?	3
	어휘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가 양과 주제 범주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충분한가?	3
		새로 나온 어휘는 후에 충분히 반복되는가?	2
	발음과 억양	발음 방법의 소개, 오디오 매체의 제공으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있는가?	3
		발음 학습이 듣기, 대화 연습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2
		학습 내용(개별음의 조음, 단어의 강세, 구어적 축약형, 문장의 강세, 억양, 음운 규칙 등)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져 학습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는가?	2
	담화와 화용	교재가 문장 이상의 언어 사용의 규칙과 구조를 다루어 활용성이 있는가?	3
		제시되는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2
	문화	일상 문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는가?	3
		문화 내용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2
영역 별 학 습 측면	영역별 학습 전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개 영역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는가?	3
		각 영역이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제안되고 있는가?	2
		4개 영역 학습 분량의 배분이 적당한가?	2
	말하기	구어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가?	3
		구어 자료가 학습자의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히도록 되어 있는가?	3
		실생활 관련 말하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듣기	듣기를 위한 다양한 매체 자료가 있는가?	2
		듣기 자료가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2
		듣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맞는가?	2
		듣기의 실생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2
	읽기	읽기 자료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는가?	1
		읽기 자료의 주제는 다양하고 편견이 없는가?	1
		읽기 자료가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1

		읽기 자료의 전체적인 양과 개개의 길이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잘 맞는가?	1
	쓰기	텍스트 유형에 따른 문어체의 다양한 문체가 제안되는가?	1
		단락 구성이 적절히 교수되는가?	1
		실생활 쓰기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1
학습 평가 와 피 드백 측면	평가	평가 목표와 준거가 분명한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가?	2
		평가의 세부 항목들은 학습 목표에 맞게 제시되고 있는가?	2
		연습 문제에 조언과 방향이 제시되어 학습 활동의 부분으로 이루어졌는가?	2
총점			106

● 총평

이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통합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보조 교재로 활용한다면 좋을 듯 하다.

세 권의 교재가 모두 서양인의 시각에서 서양인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제안된 교재이고 영어로 기술되어 있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이 교재처럼 문법, 어휘로 나뉘서 이주 여성 상황에 맞게 교재를 개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휘 교재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 어휘 6,000개 중에서 저자의 임의대로 선택하여 수록해 놓은 것으로 국제 이주 여성 학습자에게 유용한 어휘 교재는 아니다. 문화 소개 역시 서양인의 시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문법 교재나 어휘 교재에 제공된 팁들도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잘못 쓰이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서 이주 여성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 교재처럼 이주 여성이 자주 접하는 어휘를 주제별로 나뉘서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다면 이주 여성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교재처럼 대화, 문법, 어휘로 나뉘서 이주 여성의 상황에 맞게 발간한다면 보조 교재로서 효과적인 것이다.

문법 교재의 경우 문법 항목을 패턴처럼 소개해 놓아서 순서대로 학습하지 않아도 되고 학습자가 자신에게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보충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다.

3. 교재 분석 결과 종합 정리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부 우리엄마의 한국어	배재대&삼성 내가 좋아하는 한국어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 한 한국어 (첫걸음/중급)	(주)다락원 Korean Made Easy for Beginners	(주)다락원&아리랑TV Arirang Korean Basics 1,2
교재 개요	그룹 학습용	△	○	△	△	○
	개별 학습용	○	△	○	○	○
	학습 대상	농촌 결혼 이주 여성	이주 여성, 국외 한국어학습 희망 자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및 해외동 포	성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자 수준	한글을 학습한 기초 학습자	기초 지식이 없는 한국어 초급 학습 자	기초지식이 없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부터 중급 학습자	기초지식이 없는 한국어 초급 학습 자	한글을 학습한 초급 학습자
	기획 의도	농촌 여성 결혼 이민 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함	한국어를 처음 접 하는 학습자들에게 자국어 번역(8개국 어)을 넣어 보다 낮설지 않게 하려 함.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된 교재. 결혼 이주 여성들의 눈 높이에 맞는 한국어 교 재.	보다 친절하고 실 생활 활용도가 높은 독 학용 한국어 첫걸음 교 재.	Arirang TV에서 방 송되는 Let's Speak Korean의 방송교재 및 한국어 말하기 표 현을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교재.

	발행일자	2007년 5월 18일	2007년 10월 9일	2007년 6월	2006년 3월 24일	1-2006년 11월 16일 2-2007년 2월 28일
	사용 언어	영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타갈로그어	부록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아랍어 사용	첫걸음 교재만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미얀마어, 힌디어 총 11개 언어 부록 수록	영어 / 중국어 * 중국어판은 중국 외연사에 판권이 판매되어 출간됨.	영어
	완성 학습 시간	주3회 1시간씩 총 55시간, 약 5개월	1과당 4시간	중급 1단원당 3시간 수업(총 25단원)		
	가격	무료(지자체 대상 농림부 제작 배포)	무료	무료	17,000원	각 권당 12,000원

교재 외적 구성		전체 페이지수	총 234쪽 -교재개요 1~9 -교과구성 10~203 -부록 204~234	총 244쪽 -교재개요 1~8 -교과구성 9~188 -부록 189~244	첫걸음 : 총 160쪽 -교재개요 1~8 -교과구성 9~98 -부록 99~160 중급 : 총 168쪽 -교재개요 1~10 -교과구성 11~160 -부록 161~168	총 288쪽 -교재개요 1~12 -교과구성 13~262 -부록 263~288	총 224쪽 -교재개요 1~14 -교과구성 15~210 -부록 211~224
		판형/색도	4도 국배판 변형	단도 국배판 변형	4도 4X6배판	4도 4X6배판	4도 4X6배판
		교재/부교재	언어별 교재1권/교사 지침서/듣기 CD	언어별 교재1권/듣 기 CD	첫걸음, 중급 교재 각 1 권	표현문형 정리 소 책자/듣기 CD(MP3 무료 제 공)	듣기 CD(MP3 무료 제공)/Arirang TV 방송
교재	세부	선수학습 여부	필요함.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함.

내용 구성	내용	교재 내용 구성	도입→대화→문법 및 표현→말하기→쓰기 →듣기→인터뷰과제 →심화어휘 및 표현 →계절과 절기→우리 고장 이모저모→듣기 지문→불규칙 동사	학습 목표→문법 설명과 연습문제→ 듣기→말하기 연습 →읽기→쓰기→문 화	첫걸음 : 예비편(한글 익히기)→ 본 단원(1~4과는 자모 편, 5~7과는 인사, 감사, 도움 주기, 도움 받기, 숫자 표현 등)→부록 1(접받침)→부록2(언어 별 번역) 중급 : 대화→어휘→문법1,2→ 말하기→읽기	예비편(한글 익히 기) →본 단원(도입 →문형 및 문법 설 명→본문 대화→발 음, 확장어휘 및 표현→연습문제→ 문화)→부록(기타 문법 설명→정답→ 색인)	대화, 발음, 신출 어 휘, 대화 팁→문법 설명, 문법 팀, 확인 문제→확장 표현, 문 화 소개
		제시 문법	한 과당 4~5개	한 과당 2~4개	한 과당 2개	한 과당 4~5개	한 과당 1~2개
		내용 확인/ 체크문항 여부	X	○	○	○	○
		영역별 학습	말하기/듣기/쓰기/읽 기 모두 있음.	말하기/듣기/쓰기/ 읽기 모두 있음.	첫걸음 : 읽기/쓰기/듣기 중급 : 말하기/읽기/쓰기 (쓰기는 별도의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문법1,2 에서 다룸)	영역별 학습은 이 루어지고 있지 않 지만 퀴즈 부분에 서 문법, 듣기, 읽 기로 나누어 학습 한 내용을 확인하 고 있음.	회화교재이기 때문에 영역별 학습은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

		단원확인 문항 여부	X	X	X	○	X
		보충/심화 내용 여부	○	X	X	○	○
		단원요약 정리	X	X	X	X	X
		부록 구성요소	듣기지문/대화지문/ 불규칙 활용	듣기지문/모범답안 /문법 번역	첫걸음 : 겹받침/본문내 용 언어별 번역 중급 : 단원별 문법 항 목 해설/교재 등장 주요 인물 설명	권말 부록 : 기타 문법 설명/정답/색 인 별책 부록 : 38개 주제의 표현 문형 및 예문 제공. 영 어 번역도 되어 있 음.	확인 문제에 대한 답 안/어휘 색인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초급, 중급)	한림 초급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문진미디어 Active Korean (1, 2)	넥서스 Survival Korean (회화, 문법, 어휘)
교재 개요	그룹 학습용	○	○	○	○	X
	개별 학습용	○	○	△	○	○
	학습 대상	여성 결혼 이민자	일반 목적 학습자	일반 목적 학습자	일반 목적 학습자	일반 목적 학습자
	학습자 수준	기초, 초급, 중급 학습자	기초, 초급 학습자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초급 학습자	초급 학습자
	기획 의도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지원을 위함	한국어로 원활히 의사 소통하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영역별 교재.	한국어로 원활히 의사 소통하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통합 교재.	단기간에 실제적인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단기 연수용 교재.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 및 기초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를 위한 교재
	발행일자	첫걸음: 2007. 4 초급: 2005. 12 중급: 2007. 4	말하기: 2006. 3. 25 쓰기: 2006. 3. 25		1권 : 2006. 8. 1 2권 : 2007. 1. 10	초급 : 2005. 1. 25 문법 : 2007. 4. 5 어휘 : 2007. 11. 5
	사용 언어	한국어 (초급 교재는 베트남어도 따로 출간)	영어	한국어	영어	영어
	완성 학습 시간				60시간의 단기 연수용 시리즈 교재	

		가격	무료	말하기: 15,000원 쓰기: 20,000원	I : 15,000원 II : 15,000원 III : 18,000원 IV : 15,000원 V : 16,000원	1권 : 15,000원 2권 : 15,000원	초급: 21,500원 문법: 19,500원 어휘: 21,500원
교재 외적 구성		전체 페이지수	권별 각 160쪽. - 교재개요: 8~9 - 교과구성: 9~152 - 부록 (권별 교과구성과 부 록 페이지는 약간씩 다름)	말하기: 208쪽 쓰기: 328쪽 (말하기-교재개요, 본문, 색인 / 쓰기- 교재개요, 한글소개, 본문, 정답 및 색인)	I : 162p. II : 204p. III : 222p. IV : 142p. V : 174p. (각 권은 교재개요, 본문, 색인으로 구 성)	1권: 164쪽 - 교재개요: ~15 - 교과구성: 16~141 - 부록 2권: 160쪽 - 교재개요: ~15 - 교과구성: 16~133 - 부록	초급: 272page 문법: 252page 어휘: 382page (각 권은 본문과 부 록으로 구성. 초급은 한글 소개 있음)
		판형/색도	4도, 4X6배판	4도, 4X6배판	4도, 국배판	4도, 국배판 변형	4도, 4X6배판 변형
		교재/부교재	교재: 첫걸음, 초급, 중급 워크북: 첫걸음, 초 급, 중급. 교사 지침서 1권	말하기 교재는 CD 1 장 부록 있음. (각 권당 워크북, 교 사 지침서 발간 예 정)	각 권마다 워크북, CD 별매	각 권마다 CD 1장 부록	초급, 문법 : CD 2장 어휘 : CD 1장
교재	세부	선수학습 여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함.	

내용 구성	내용	교재 내용 구성	초급: 대화→문법→ 어휘 및 표현→읽기 →쓰기 중급: 대화→어휘 및 표현→문법→말하기 →읽기	말하기: 준비하기(도 입, 듣기, 어휘) →말 하기(문법, 연습, 발 음) →말하기 과제 1, 2, 3→자기 평가→ 문화 쓰기: 도입→예시글 →어휘 및 표현→문 법→과제→자기 평가 →문화	대체적으로 초급 단 계는 문법, 과제 활 동, 읽기, 쓰기로 되 어 있고 중, 고급으 로 가면 말하기 활 동, 읽기, 토론, 듣 기, 쓰기 등을 다룸.	도입→핵심 대화→ 대화 연습→과제 활 동→듣기→읽기와 쓰기→추가 표현	초급: 도입→대화→ 핵심 표현→추가 어 휘→문법 설명→문 화→연습 문제 문법: 도입→확장→ 연습 문제 어휘: 주제별 어휘 소개
	제시 문법		초급: 단원당 1~3개 중급: 단원당 2개	단원당 2~4개 제시.	단원당 3~4개 제시.	단원당 3~6개 정도 의 문법 사용. 문법 설명은 부록에 제시.	문법 교재는 단원당 1개의 문법 학습.
	내용 확인/ 체크문항 여부		X	X	X	X	X
	영역별 학습		초급: 읽기, 쓰기 중급: 말하기, 읽기	영역별 교재. (말하 기, 쓰기 영역 교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 학습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통합 학습	영역별 교재. (말하 기, 문법, 어휘 교재)
	단원확인 문항 여부		X	X	X	X	X
	보충/심화 내용 여부		X	X	X	X	X
	단원요약 정리		X	X	X	X	X

		부록 구성요소	첫걸음: 생활 표현 11개국 언어 부록 수록 초급: 결혼이민자를 위한 법률, 생활 기 초 정보 중급: 단원에 제시된 문법 설명(한국어).	말하기: 어휘 색인 쓰기: 연습 문제 정 답 및 어휘 색인	본문에 사용된 문법, 표현, 어휘에 대한 색인 수록.	본문에 사용된 문법 영어로 설명, 듣기 지문, 어휘 색인 수 록.	초급: 정답, 색인 문법: 확장란에 소개 된 문장 영어 번역, 정답, 동사 변화표 어휘: 색인
--	--	---------	---	---	--	---	---

4. 방문형 한국어교육 교재 개발 시 시사점

시중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방문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내용 측면

- 다양한 읽기와 쓰기 장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연습과 활용을 위해 좀더 많은 예문이 제공되어야 한다.
- 실생활에서 필요한 문화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 발음 학습에 힘쓰되 지루하지 않게 설명과 예문을 잘 든다.
- 이주 여성이 자주 접하는 어휘를 주제별로 나눠서 이주 여성의 언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재 개발 및 구성측면

- 이미지 자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 어휘나 문형 관련 플래시 카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교구
- 삽화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삽화를 통해 문화를 교육할 수 있다.
- 초급 교재는 학습자가 알아야 하는 기초 어휘를 그림이나 삽화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다양한 플래시 카드와 문장 구성 방법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통합 교재는 발음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발음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보조 교재가 필요하다.
- 대화, 문법, 어휘로 나누어 이주 여성의 상황에 맞게 발간한다면 보조 교재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학습 운영 측면

- 일대일 학습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작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방문 교재 개발 시 블랜디드 러닝의 학습 방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IV.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능력 신장 방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위한 인터뷰

- ✦ 2007년 12월 7일 부터 2007년 12월 11일 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
- ✦ 인터넷, 매스컴 자료, 관련자 소개를 통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을 하는 단체 중 ‘옥천 한국어학당’, ‘인천 여성의 전화’, ‘대전 모이세 센터’, ‘대교 남해 교육국’, 한국어 교재 출판을 하는 ‘A 출판사’ 섭외
- ✦ 섭외된 단체장을 통하여 한국어를 교육받고 있는 이주여성과 교사를 소개 받아 인터뷰 실시
- ✦ 인터뷰를 위하여 교육 운영자, 학습자(이주 여성), 교사, 교재 개발자로 나누어 인터뷰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
- ✦ 교육 운영자 4명, 학습자(이주 여성) 16명, 교사 4명, 교재개발자 1명을 대상으로 아래 <표 IV -1>과 같이 인터뷰를 실시

1. 인터뷰 대상

< 표 IV-1 > 인터뷰 대상 및 참석자수

운영자			학습자			교사			교재개발자		
소속	일시	참석자수	소속	일시	참석자수	소속	일시	참석자수	소속	일시	참석자수
옥천	12/7	1명	옥천	12/7	2명	대전	12/11	3명	다락원	12/11	1
인천	12/8	1명	인천	12/8	8명	남해	12/11	1명			
대전	12/11	1명	대전	12/11	5명						
남해	12/11	1명	남해	12/11	1명						
계	4회	4명	계	4회	16명	계	2회	4명	계	1회	1명

총 계 : 11회, 25명

- * 옥천 : 옥천 한국어학당 * 인천 : 인천 여성의 전화
- * 대전 : 대전 모이세 센터 * 남해 : 눈높이 대교 남해 교육국

본 연구의 인터뷰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능력 신장 방문교육 프로그램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방문교육에 적합한 교재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의 운영자와 교사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운영 및 현황에 관하여 파악하고 앞으로의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점에 관하여 주로 인터뷰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는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에 관한 내용을 주요 질문으로 하여 교육 만족도 및 효과성, 개선점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 인터뷰 내용

가.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자

1) 옥천 한국어학당

- ⊕ 현재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학습은 어학당에서 학습하는 경우와 찾아가는 무료 지원서비스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 중
- ⊕ 어학당 학습인 경우는 주1회 2시간씩 학습, 방문학습의 경우는 주1회 1시간 학습
- ⊕ 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Tape등 매체를 통한 듣기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든 교육환경이라 함
- ⊕ 자녀의 학교 입학에 따른 “쓰기” 공부에 대한 요구가 높아, 방학 특강으로 예비초등 학부모 과정을 운영, 초등1-2학년 과정을 현직 초등교사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함, 주교재와 함께 집에서 숙제를 통하여 학습 할 수 있는 부교재 필요로 함
- ⊕ 지방(시골)인 경우는 교통편이나 시부모와의 관계, 자녀 양육문제로 어학당에서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아 “찾아가는 무료 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하며, 방문 교육을 통한 한국어 학습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인천 여성의 전화

- ⊕ 주1회 2시간씩 센터교육만 진행하고 있음
- ⊕ 기초, 초급반은 회화 위주로 수업 진행, 고급반은 KLPT(한국어 인증시험 문제풀이 교재) 교재로 진행, 쓰기 및 문법 교육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
- ⊕ 기초반, 초급반의 경우는 여성가족부 교재를 사용하며, 부족한 부분은 교사가 별도의 그림 카드 및 보충교재를 제공하며 수업하고 있음

3) 대전 모이세 센터

- ✦ 센터에서 주중 5개 반, 주일 5개 반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무료 지원 서비스” 차원에서 방문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 센터에서 주1회 1시간 30분 씩 학습(실제 학습 시간은 2시간 정도 됨)
- ✦ 말하기, 읽기, 쓰기 위주로 진행되며, Tape 등 매체를 통한 듣기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다른 교재를 복사하여 프린트물로 제공하면서 보조 교재로 사용함
- ✦ 테이프를 통한 듣기와 말하기, 받아쓰기와 일기쓰기 등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교재 필요
- ✦ 각국의 언어를 함께 적어놓은 초급자용 교재가 가장 시급하며, 교육내용에 다문화 내용을 포함 시키는 부분도 시급, 교사를 위한 지침서도 필요
- ✦ 지역적 혹은 집안 여건으로 인하여 센터에 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므로 방문교육 매우 필요함. 단, 교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방문교육에 대한 사업성은 없다고 판단되어짐, 한국어 방문학습 가정에서 학습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가적인 조치(양육도우미)가 뒤따라야 함

나. 한국어 학습자 (이주여성)

1) 옥천 한국어학당

- ✦ 현재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어학습은 어학당에서 학습하는 경우와 ‘찾아가는 무료 지원서비스’의 두가지 형태로 운영 중
- ✦ 주1회 2시간씩 학습(학습시간 만족), 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자녀의 학교 입학시 학습지도를 위해 “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음
- ✦ 교재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쓰기 교재에 대한 추가교재 요구 있음, 교육내용 및 구성에 대한 큰 불만 가지고 있지 않음
- ✦ 현재 어학당에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방문학습 보다는 어학당에 나와 공부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함.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한국 문화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고 질문이나 어려운 학습 내용이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질문 할 수 있어 어학당 학습 선호함

2) 인천 여성의 전화

- ✦ 교사 1명과 함께 기초,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나뉘어 **그룹 학습으로 진행**
- ✦ **주1회 2시간씩 학습, 학습시간 및 학습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 다른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추가로 받는 학습자들 많았음
- ✦ 수업 중 말하기, 듣기 교육은 잘 이루어지나, 발음 및 쓰기 교육은 부족. 초급과정만 지나면 듣기, 말하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문법, 쓰기, 발음은 어려움
- ✦ 기초, 초급반은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주로 사용**, 중급반 부터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교재 사용, 고급반의 경우 KLPT 한국어 인증시험 문제집 사용하기도 함
- ✦ **쓰기 교재에 대한 요구도 높음**
- ✦ 개별 방문 교육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선정 및 문법 학습, 개별 발음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특히 개별 방문 지도 시 발음 지도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음

3) 대전 모이세 센터

- ✦ 모이세 센터에서는 센터에서의 한국어 학습과 찾아가는 무료 지원서비스를 함께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
- ✦ **주1회 1시간 30분씩 학습**, 학습시간에 대해서는 만족함
- ✦ 주로 말하기, 읽기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며, 쓰기 학습에 대한 비중은 적은 편이라 함, 한국말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받아쓰기를 돌보아 주거나 쓰기 공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쓰기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초급자의 경우 실생활 적용 대화 내용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 교재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재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으나 쓰기 교재에 대한 요구도 높음
- ✦ 현재 센터 학습을 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방문학습보다는 센터학습을 선호함. 친구들과 교류를 통하여 학습, 질문이나 이해가 어려운 내용은 옆의 친구가 통역해 주거나 선생님이 바로 도와 주어서 센터 학습을 더 선호, 1:1 방문 학습에 대한 부담감 큼

다. 교사

1) 대전 모이세 센터

- ⊕ 센터교육과 찾아가는 무료 지원 서비스 지도
- ⊕ 주1회 센터교육 1시간 30분, 주1회 찾아가는 무료 지원 서비스 1시간 30분, 주 2회 3시간씩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한국어 가르치고 있음
- ⊕ 말하기와 문법 쪽에 치우쳐 교육하게 되며 쓰기 교육 매우 부족함
- ⊕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가 가장 적절하고 많이 쓰고 있음
- ⊕ 주교재만 있을 뿐 듣기 테이프나 교사지침서 조차 없어서 다른 교재들을 복사해서 추가로 쓰고 있는 실정임
- ⊕ 초급의 경우는 쓰기 내용 부족, 중급은 실생활 대화 내용이 부족, 고급과정은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강 필요 하다고 함
- ⊕ 초급자를 위한 자국어가 포함된 교재가 꼭 필요하며, 오히려 영어는 없어도 괜찮음
- ⊕ 워크북 형태의 부교재 필요하며 쓰기 과정 보강된 쓰기 노트 필요함

라. 교재 개발자

1) A 출판사 한국어 출판부 과장

- ⊕ 현재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에 대한 초급의 수요가 현저히 많음, 쉬운 교재, 첫 걸음용 교재의 수요가 많음
- ⊕ 주요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 현재는 4대 영역, 어휘, 문법, 문화 등을 통합한 교재가 많지만 앞으로는 영역을 구분해서 개발할 것으로 보임
- ⊕ 페이지 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 국제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교재를 개발 시 이주 여성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따라 교재 구성 필요

- ✧ 기관에서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아 1:1 방문 학습을 하는 것이라면 학습환경에 대한 제약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방문학습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는 짝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또한 플래시 카드의 활용이 교육방법에서 효과적이고 중요함
- ✧ 발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발음 교육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
- ✧ 대교 'E•nopi' 한국어 워크북 활용에 대한 의견으로 우선 교재의 교육 대상이 'E•nopi' 인 경우는 어린이임으로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워크북 사용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 교재 내용을 한글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번역해서 뜻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 교재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적음,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 일대일 방문 학습은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문교사 양상 과정 지원 필요함

마. 지역사회 혁신 바우처 참여 교육국

1) 대교 남해 교육국

- ✧ 남해 교육국 교사 중 7명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 학습 관리 중(총 20명)
- ✧ 교재는 '눈높이국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학습 부분은 실생활 상황과 연계하여 수업
- ✧ 학습자 수준과 교사별로 말하기, 쓰기 활동의 비중이 달라짐, 수업 진행은 눈높이국어 학습과 동일한 flow를 따라 지난주 학습 복습 → 교재 진도 중 새로 나온 단어 설명 → 받아쓰기(잘 할 경우에만 해당) → 생활이야기
- ✧ 주1회 10분 관리가 원칙이나 실제 수업은 30분 정도 하게 됨
- ✧ 바우처 참여로 일시적으로 교육국 내 신규 입회 회원은 늘어났으나 바우처 지원 종료시 학습 중단으로 이어지는 회원이므로 장기적인 영입이익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 농촌 지역의 경우 교사 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이주 여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음
- ⊕ 이주 여성을 관리하는 눈높이교사 대상으로는 특별한 다른 교육 하고 있지 않음
- ⊕ 방문학습을 통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시 학습환경에 대한 고려 필요, 자녀 양육 문제, 시어머니와 남편의 학습에 대한 지원 정도가 중요함
- ⊕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교재 필요함

3. 인터뷰 내용 종합 정리

< 표 IV-2 > 인터뷰 내용 종합

	운영자	학생(이주여성)	교사	교재개발자
교육형태	•센터교육 뿐 아니라 방문 교육도 이주여성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형태라고 생각함	•<u>센터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우 센터 학습을 선호함.</u> 단, 출산 등으로 인하여 센터에서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학습 필요하다고 함. •1:1 방문학습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있음 •반면, 1:1 방문 개별 지도를 통하여 발음 및 문법 지도 체계적 교육을 기대하기도 함	•방문학습으로 교육이 진행될 경우 <u>교육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u>, 예를 들면 교육 하는 동안 자녀를 돌보아주는 시스템 혹은 시부모나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방문학습으로 학습이 지속되기 어려움	•<u>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는 짝 활동 및 소그룹 학습 형태가 적당하다고 함</u> •방문학습으로 한국어 교육 실시될 경우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부문 중요 •전문 교사 양성 지원 제도 필요함
교육시간	주1회 2시간 적당	주1회 2시간 만족	-	-
교육내용	•현재 말하기, 읽기 위주로 쓰기교육에 대한 요구 높음 •사투리에 대한 언급 필요 •<u>다문화 교육 내용 포함 필요</u>	•현재 말하기, 읽기 위주로 <u>쓰기교육에 대한 요구 높음</u> •<u>발음 및 쓰기교육 부족</u>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체계적인 발음 교육 요구 기대, 쓰기교육에 대한 요구 높음	•<u>다문화 교육 내용 포함 필요</u> •성인 여성의 실생활이 반영된 교재 개발 필요(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 •교재내용 자국어로 번역한 뜻 제공 초급 과정에는 필요	•<u>발음 교육</u>에 체계적인 교육 필요 •조음방법이나 입모양에 대한 교육 필요 •교재내용 자국어로 번역한 뜻 제공 초급 과정에는 필요
교재	•주교재 이외에 쓰기 노트 등과 같은 부교재 필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출판한 교재 주로 사용하고 있음 •비교적 만족하는 편임 •쓰기연습 할 수 있는 교재 더 필요하다고 함	•다양한 부교재(동화책, 플래시 카드, 쓰기노트, 단어카드, 단어그림장) 및 교사 지침서에 대한 개발 요구 •워크북 형태의 부교재 개발 필요	•다양한 플래시 카드 및 부교재 필요 •교재 개발 시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한글, 문장 구조 등을 참고해야 함

인터뷰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주1회 2시간 학습시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고, 학습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교육 내용 부분에서 말하기와 읽기 부분의 교육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체계적인 “발음” 교육과 “쓰기” 교육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교재면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 및 요구 되는 부분은 “쓰기”학습 부분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만으로는 “쓰기”를 충분히 학습 할 수 없음으로 이를 위한 부교재 개발(워크북) 혹은 본 교재에 쓰기 학습에 대한 추가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본 교재와 함께 플래시 카드 및 단어장, 쓰기 노트, 다양한 읽을 꺼리 등이 함께 보조교재로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 다문화적인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발음” 교육 면에서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전문교사 양성이 적극적으로 필요로 되어지는 부분이다.

센터에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현재 센터에 나와서 학습하는 것에 대하여 만족해하고 있었고 센터 학습이 학습 효과면에서 더 높다고 말한다.

하지만 발음이나 문법 지도 면에서는 개별적인 지도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 방문학습에 대한 교육 효과성에 대해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는 운영자들 역시 국제결혼을 통하여 이주한 여성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 자녀양육 문제,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 거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반드시 방문학습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단, 이러한 방문학습을 통한 한국어 교육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문 한국어 학습 지도시 자녀 양육 문제 및 시부모 및 남편과 적극적인 지원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터뷰 결과에서 정리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등을 잘 반영하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능력 신장 방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V.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방문형 한국어교재 개발방향

1.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목적

본 연구에서 정의된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제적인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
- 언어와 문화 교육을 통해 언어 숙달도와 문화 숙달도를 높임

문헌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교육 방법과 내용, 교재의 난이도 등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습자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개발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국제 결혼으로 인해 국내에 거주하게 된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임
- 성인 외국인 학습자이므로 한국어의 어휘나 구조에 대한 스키마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살아온 경험에 의해 축적된 세상사 지식(knowledge of the world)에 관한 스키마는 풍부하게 지니고 있음을 고려
- 학습자의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에서 아래로(top-down)’의 하향식 정보처리과정에 입각한 인지주의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⁵
- 학습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존재임
- 학습 행위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틀’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과 교섭하면서 매우 능동적으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목표지향적인 활동으로 봄⁶

⁵ 원진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1999. p.33.

⁶ Ibid.

2.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방문형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2005 년 말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주 여성 수는 66,659 명이며, 이 중 재중동포(41.6%), 중국(20.1%), 베트남(11.1%), 일본(10.7%), 필리핀(5.7%)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 특징을 살펴보면, 75%는 도시(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거주 지역은 경기 및 인천에 31.8%, 서울 25.1%에 다수 거주, 출신 국가별로는 재중 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뷰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어학당과 같은 한국어 그룹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학당 수업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가정에 찾아오는 가정 방문형 한국어 학습 또한 개별 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농어촌 지역거주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요구되나 자녀양육 문제,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 거리적인 문제 등으로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방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음은 방문형 한국어 교재와 그룹 학습 교재를 교육 시스템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 표 V-1 > 방문형 한국어 교재와 그룹 학습 교재 비교

구분	방문형 한국어 교재	그룹 학습 교재
학습 방식	1: 1 개별 학습	일반 집단 학습
학습 주체자	교사, 교재, 학습자 중심 교육 - 자율적 학습	교사 중심 교육(교사의 교수 능력과 질에 따라 학습의 질이 좌우)
개인차	개인의 차 존중, 적응	개인차 무시
학습 출발점	진단 테스트를 통해 개인별 능력별로 시작	세분화되지 않은 과정별(초, 중, 고급) 수업 시작
진도 결정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따라(학습자 주체)	주차별 학습 계획(교사 주체)
평가 방법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체계화된 평가 없음
난이도	세분화 가능	동일 수준 교재 내에서도 난이도 차이 큼
교육 장소	가정(이동이 필요 없음)	일정 공간(교육을 위한 이동 필수)

방문형 일 대 일 한국어 학습은 그룹 한국어 교육의 취약점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차와 개별 지도의 부족을 보완하고, 우수한 학습자에게는 더욱 더 우수하게,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결손된 학습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학습을 유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방문형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방문형 한국어교재 컨셉 및 특징

한국어교재 컨셉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서 ‘생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1년 과정 초급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특징 1

개인별
능력별
학습,
자학 자습
교재

- 학력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학습 경험과 한국어능력을 파악한 다음, 개인에 맞는 출발점을 선정하여 학습을 진행함
- 학습 진행 과정 중에도 개인의 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진도를 조정할 수 있음
- 모든 활동이 혼자서 하기 쉽게 되어 있고 ‘교사와의 학습’에서 학습한 내용을 ‘가정 학습’에서 반복, 심화 학습하므로 조력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교재를 풀 수 있음
- 매주 ‘형성 평가’, 1, 2, 3단계 수료 후 ‘총괄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주요 지시글은 아이콘화 하여 한글을 읽을 수 없는 학습자라도 학습 내용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어 카드와 오디오 테이프는 한국어와 자국어(예.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로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움

특징 2

스물
스텝식
학습, 반복
학습 등을
통한 완전
학습

- 매주 ‘교사와의 학습 → 가정 학습 → 형성 평가’ 등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스물 스텝식으로 학습함
- 낱말의 친숙도, 발음의 난이도, 문장의 형식, 글감의 길이나 주제 등으로 각 과정 간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이 가능
- 각 세트별 형성 평가, 초급 단계 수료 후 총괄 평가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진단 및 반복학습 가능(선택 사항)

특징 3

통합
기능적
학습

- 한국어 학습의 통합 기능적 교수법에 따라 자모음자에서부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통합 기능적 학습을 통해 한국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음
- 교사와의 학습에서 뿐 아니라, 가정학습에서도 4대 영역 연습가능

특징 4

나라별
문화와
풍속에
대한 이해

- 실생활과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여러 종류의 언어 자료를 통해 한국의 풍습과 문화 등을 접할 수 있음
- 교재 내 ‘한국문화·타국문화 엿보기’를 통해 한국의 풍습과 문화, 타국의 풍습과 문화를 비교해보며 다문화 교육 가능

4. 학습 목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다.

가정 방문 한국어 교사와 1주 1회 1시간, 총 1년 52주 학습 과정을 통해 초급 수준의 한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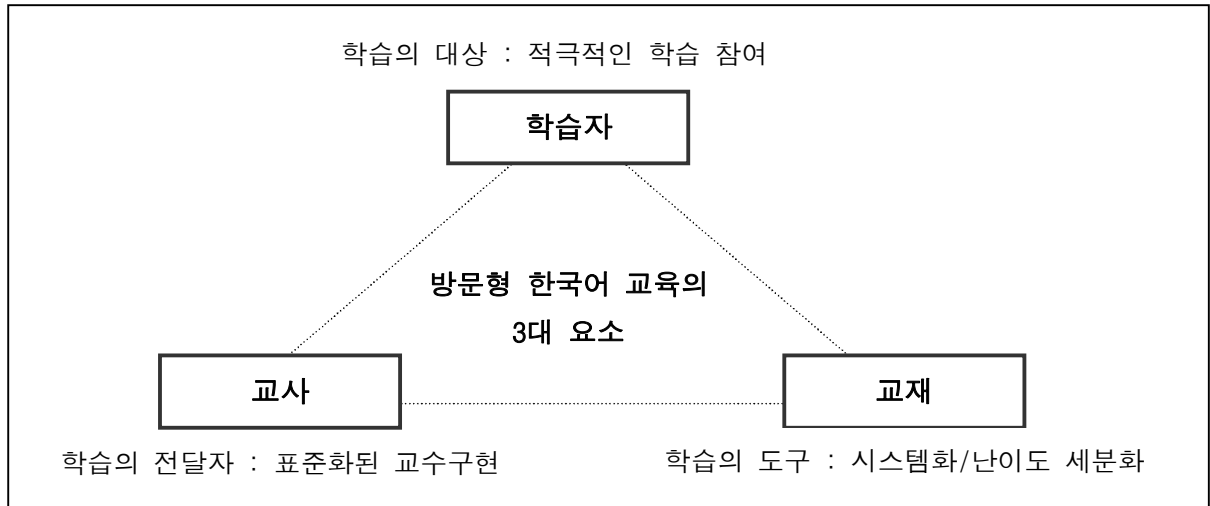
학습 과정 중 한국의 문화, 풍속, 역사 등을 간접 경험하고, 자국 문화와 비교·이해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5. 교재 개발 방향

교육과정 / 교수 요목 근거 교재	1년 52주, 1시간 학습 과정으로 학습 성취목표, 단계별 세트별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제시, 이에 근거한 학습 교재
학습자 중심 교재	다양한 교재와 부교재를 통한 학습자 중심 교재 - 교재 : 통합 기능적 학습 교재 - 단어카드 :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플래시 카드로 이용 - 쓰기 노트 : 쓰기 연습 - 오디오 테이프 : 듣기 활동, 발음 연습
개인별 능력별 교재	학력진단 평가를 통해 개인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출발점이 결정되고 학습 성취도에 따라 진도 향상이 되는 교재
통합 학습 교재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회화 위주의 문장으로 통합 기능적 학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재
목표언어능력 신장 교재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자 수준에 따라 과정별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흥미를 유발하는 쉬운 교재	학습자의 생활에서 익숙직한 상황별 학습, 재미있는 삽화와 방문 학습지의 노하우를 이용한 쉬운 교재
다문화 수용 교재	한국 문화와 학습자의 출신국별 문화 비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 수용교재 - 주 교재 : 단어 카드에 이주 여성 모국어 함께 병기 - 오디오 테이프 : 이주여성 출신국이 많은 3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로도 더빙
교수학습이 쉬운 교재	매 주차별 학습에 대한 교사 가이드 제공(단계별 1권, 총 3권)과 시스템화된 교재로 교사의 교수 부담을 덜고 교수 학습이 쉬운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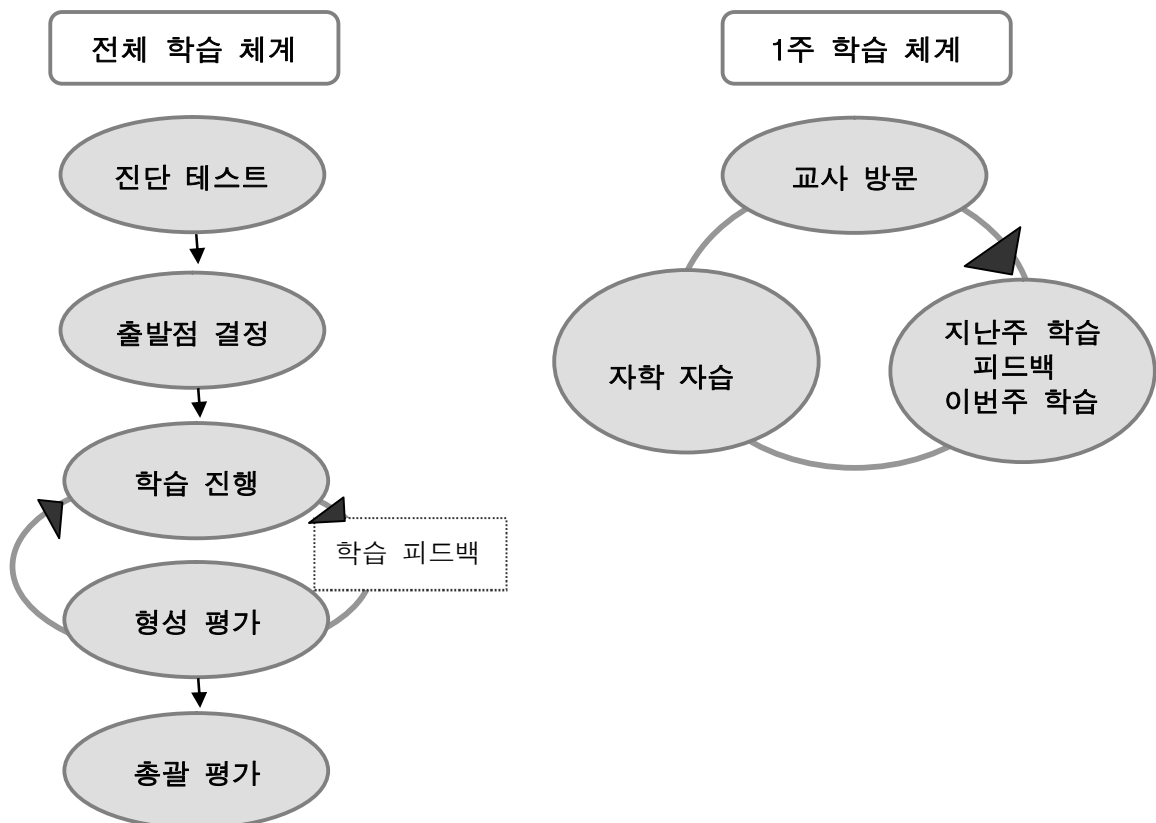
6. 방문형 한국어 교육 체계

방문형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는 학습자, 교사, 교재이며, 이 3대 구성 요소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교육의 효과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V-1 > 방문형 한국어 교육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방문형 한국어 교육의 3대 요소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문형 한국어 교육의 전체 학습 체계와 1주 학습 체계는 다음과 같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반만년 단일 민족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다문화 추세와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1990년대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 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 국제결혼 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 특히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유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에 대한 해결책을 중국 동포 및 동남 아시아 여성들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적응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가족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여 상대방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족 내 갈등, 사회적 부적응, 그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 및 자녀의 한글 언어 능력 저하, 학업 성취도 결핍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및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결혼이민 가족지원 연대를 통한 그룹 한국어 학습과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개별 방문 학습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 제작·배포하고 교육하는 한국어 교재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학습 대상은 명확하지만, 한글학습이 좀더 체계화 되어야 하고 내용 연계가 좀더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발음이나 듣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보충해야 하며, 혼자서 연습·복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학습을 위해 시판되는 한국어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교재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는 어휘이기는 하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어휘와는 다르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또한 어학당에서 발간하는 교재의 경우에는 주로 상황별 짝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수업에 유용한 교재이므로 개별 수업에서는 교재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방문형 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운영자, 교사, 수강생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제결

혼 이주여성 중 어학당과 같은 그룹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학당 수업에 만족하지만, 가정에 찾아오는 가정 방문형 한국어 학습 또한 개별 학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농어촌 지역거주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요구되나 자녀양육 문제, 거리적인 문제 등으로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방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방문형 일 대 일 한국어 학습의 장점은 그룹 한국어 교육의 취약점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차와 개별 지도의 부족을 보완하고, 우수한 학습자에게는 더욱 더 우수하게, 한국어가 부족한 학습자에게는 결손된 학습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능력신장 방문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국어 교재 컨셉 및 교재 개발 방향, 개발 범위 및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한국어 교재 컨셉

-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서 ‘생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1 년 과정 초·중급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 교육과정/교수요목에 근거한 교재 : 1 년 52 주, 1 시간 학습 과정. 학습 성취 목표, 단계별, 세트별 난이도를 체계적으로 제시, 이에 근거한 학습 교재
- 학습자 중심 교재 : 다양한 교재와 부교재(단어 카드, 쓰기 노트, 오디오 테이프)를 통한 학습자 중심 교재
- 개인별 능력별 교재 : 개인의 한국어 학습 수준에 따라 출발점이 결정되고 학습 성취도에 따라 진도 향상이 되는 교재
- 통합 학습 교재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회화 위주의 문장으로 통합 기능적 학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재
- 목표 언어능력 신장 교재 : 한국어 학습 기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단계별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 흥미를 유발하는 쉬운 교재 : 학습자의 생활에서 있음직한 상황별 학습, 재미있는 삽화와 방문 학습지의 노하우를 이용한 쉬운 교재

- 다문화 수용 교재 : 한국 문화와 학습자의 출신국별 문화 비교, 교재나 오디오 테이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 수용 교재
- 교수 학습이 쉬운 교재 : 매 주차별 학습에 대한 교사 가이드 제공과 시스템화된 교재로 교사의 교수 부담을 덜고 교수 학습이 쉬운 교재

다음에 제시되는 방문형 한국어 교재 개발 예산은 자사의 개발/제작 통합 표준 단가표를 바탕으로, 내부의 각종 교재 개발 비용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예산에는 시안비, 인쇄비, 인건비, 단어 카드 제작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외국어 추가분에 대한 교재 편집비는 고려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국어나 베트남어, 타갈로그어를 교재에 넣을 때에는 추가 편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내용은 향후 개발 분량이나 사양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 개발 범위

- 본교재 : 1,664쪽(52세트*32쪽)
- 서비스물 : 오디오 테이프 12 종, 수업 지도서 3 종(종당 100 쪽 기준, 표지 포함), 쓰기 노트 3 종(단계별 1 종), 진단 테스트지 3 종

✦ 개발 비용

- 총 개발 비용 : 455,925,940원

2. 제언

본 연구는 국립 국어원에서 수탁한 연구 과제로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어진 1달이라는 한정된 연구기간으로 인해 연구의 제약 및 한계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방문교육 교재개발 연구’ 방안에 관한 1차 연구로 하고, 실제 현장의 운영자, 개발자가 참여하는 세부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등은 제 2차 연구를 통해 추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외(2006).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농림부(2007). 2기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대상자 선정, 농림부 보도자료.
- 농림부(20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농림부 여성정책과 자료.
-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자료의 체제 분석-단원 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다문화가족 백서(2007).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이은주(2006).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초급 한국어교재 단원 내용 구성 방안: 의사소통 상황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
-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학회.
- 여성가족부(2006). 결혼이민자 정책 현황 등 관련 자료, 여성가족부.
-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및 이혼 통계 결과, 통계청.